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전황과
아랍 대중의 투쟁

2, 3, 4, 5면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과
파업

6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닷컴 버블을
뚫아 가는 AI 열풍

7면

재중 북한 노동자
점거 파업

13면

진보당, 민주당과
선거 연합

14면



청년 자살·자해 급증의 원인을 진단한다

마르크스의 자살론



관련 기사 8~9면

네타냐후, 가자지구 점령 계획을 밝히다

찰리 김버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사람들을 말살하거나 쫓아낼 수 없다면 상설 강제 수용소에 가둬 두기를 원한다.

이스라엘 총리 베냐민 네타냐후는 가자지구에 대한 이스라엘의 계획을 마침내 공개했다. 네타냐후는 미국의 모호한 악어의 눈물마저 가뿐히 무시했다. 그러더라도 바이든이 이스라엘의 인종 학살에 대한 재정·무기 지원을 끊지 않을 것임을 알기 때문이다.

2월 23일 금요일에 공개된 한 페이지 짜리 문서에는 팔레스타인 당국(서안지구에서 이스라엘과 공모해 경찰 노릇을 하고 있다, 이하 PA)이 말을 구실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다. 바이든은 PA가 가자지구를 통치하기를 바란다.

네타냐후의 계획은 이렇게 밝힌다. “요르단강 서쪽 지역 전체의 안보는 이스라엘이 통제할 것이다.” 여기에는 가자지구뿐 아니라 서안지구 전체와 이스라엘도 포함된다. 사실상 이 계획은, 가자지구를 강제 병합하고 점령지 서안지구에 대한 통제력을 더 늘리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가자지구[통치]당국은 “운영 경험에 있으면서, 테러를 지원하는 세력이나 국가와 연루되지 않은 현지 이해당사자들”, 즉 엄선된 부역자들에게 위임하겠다고 한다.

서안지구는 1993년 오슬로 협정 이래로 세 구역으로 분할돼 있는데, 이번에 공개된 이스라엘의 계획은 현재 PA가 통제하는 서안지구 A구역을 이스라엘군의 관할하에 두고자 한다.

이스라엘은 현재 서안지구 B구역을 관할하는 방식을 팔레스타인 영토 전체에서 새 모델로 삼고자 한다. B구역

에서는 이스라엘 국가가 치안·행정 일체를 통제한다.

또한 이스라엘은 가자지구를 “완전히 무장 해제”시키고 이집트로 통하는 가자지구 남쪽 국경 검문소를 폐쇄하고자 한다.

이번에 공개된 문서는 팔레스타인 국가의 정당성을 인정하길 거부한다. 또, 가자지구 내에 상당한 규모의 “치안 완충지대”를 뒤, 가뜰이나 인구 밀도가 높은 이 지역을 더 좁히려고도 한다.

몇몇 서방 정권들과 대부분의 아랍 정권들은 이스라엘이 실질적인 팔레스타인 국가의 존속을 포함한 ‘두 국가 방안’을 언젠가는 받아들일 것이라는 생각을 펴뜨리려 한다. 하지만 이는 어느 때보다도 사기이자 함정이다.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의 미래를 단기·중기·장기 단계로 구분하고는, 지난 17년 동안 계속됐던 가자지구 봉쇄를 앞으로도 지속하고, 가자지구 내 치안과 학교·모스크에서 가르치는 내용을 감독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런 계획을 집행하려면 저항을 철저히 분쇄해야 할 것이다. 이스라엘은 이르면 3월 10일로 예정된 라파흐 지상군 공격을 통해 그런 일을 달성하려 한다.

제국주의적 학살이 명백히 초읽기에 들어갔다고 볼 상황이다. 이스라엘과 그 지지자들에 맞선 행동이 시급하다.

팔레스타인 보건 당국은 이스라엘이 2월 23일 금요일에 가자지구 10곳에서 학살을 벌여 도합 104명의 팔레스타인인들을 살해했고, 10월 7일 이후 팔레스타인인 공식 사망자 수가 2만 9514명, 부상자 수가 6만 9616명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네타냐후는 미국이 지원을 끊지 않을 것임을 알기에 인종 청소 계획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강간·처형 자행한 이스라엘군

유엔 소속 전문가들은 이스라엘 군인들이 여성들을 처형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또, 이스라엘군이 구금한 팔레스타인인 여성들을 상대로 강간 등 성범죄를 자행했다는 “신빙성 있는 혐의”를 포착했다고도 밝혔다.

지난주에 발표된 보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가자지구에서 팔레스타인인 여성들이 무작위로 처형됐다고 한다. 많은 경우 이 여성들은 자녀 등 가족들과 함께 처형됐다. “우리는 팔레스타인인 여성·아이들이 피란 중 의탁한 곳에서 사법 절차도 없이 표적 살해됐다는 소식에 충격받았다. 몇몇 여성들은 이스라엘 군인 혹은 군 연계 병력에 의해 살해될 당시 하얀 천 조각을 들고 있었다고 한다.”

보고서 작성자들은 최소한 두 건의 강간 사건에 대한 증거가 있고, 여러 건의 성적 모욕과 강간 위협 증거도 있다고 밝혔다.

유엔 여성폭력특별보고관 림 알살렘은 실제 성폭력 건수는 훨씬 많을 것이라고 했다.

“실제 희생자 수가 얼마나 되는지는 앞으로 오랫동안 알 수 없을지 모릅니다.”

가자지구 팔레스타인인 여성들을 우리에 가둬 둔 채 비가 오고 추운 곳에서 먹을 것도 주지 않았다는 혐의가 최소한 한 건 이상 있다.

보고서 작성자들은 이렇게 말했다. “구금 상태의 팔레스타인인 여성들이 강제 탈의 후, 남성 이스라엘 군인에게 몸수색을 당하는 등 여러 형태의 성적 괴롭힘을 당했다는 보고가 특히 마음아아합니다.”

보고서 작성자들은 또한, 이스라엘 군인들이 모멸적 조건하에 놓여 있는 여성 구금자들의 사진을 촬영해 인터넷에 올린 혐의가 있다고도 밝혔다.

알살렘은 피해자들이 보복을 우려해 성범죄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흔하다고 지적했다.

알살렘은, 10월 7일 이후 이스라엘의 공격이 시작된 후 팔레스타인인 여성들이 대거 구금되고 있는 가운데, 이스라엘 구금 시설에서 성범죄가 점점 더 용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체적으로, 이 전쟁에서는 팔레스타인인 여성·아이·민간인들에 대한 폭력과 그들을 인간으로 여기지 않는 태도가 당연한 것이 돼 있습니다.”

▶ 3면으로 이어짐

한 주간 시온주의자들이 한 말

“나로 말할 것 같으면 가자지구의 패허가 자랑스럽다. 모든 아이들이 지금으로부터 80년이 지난 후에도 자기 손주들에게 유대인의 업적을 이야기할 것이다.”

— **메이 골란**, 이스라엘 사회평등·여성권익 증진부 장관

“당신도, 당신 자녀도, 당신 손주도 죽을 것이다. 팔레스타인 국가란 것은 결코, 절대, 결단코 없을 것이다.”

— **이스라엘 여당 리쿠드당 소속 국회의원 하노흐 밀비츠키**가 한 토론에서 아랍인 의원에게 팔레스타인 국가의 지위에 관해 한 말

“이스라엘 옆에 팔레스타인 국가를 수립하면 홀로코스트가 벌어질 것이다.”

— **아미하이 엘리야후**, 이스라엘 문화유산 부 장관

이번주에 이스라엘민주주의연구소는, 유대계 이스라엘인 3분의 2 이상이 “현 시점에 가자지구 거주민들에게 인도적 지원을 전달”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집트 노동자 운동 임금 인상 요구 파업과 광장 점거 벌이다

지난주 마할라 알쿠브라에 있는 이집트 최대 섬유 공장에서 여성 노동자 수천 명이 파업에 나섰다. 여성 노동자들은 공장 단지 내 광장을 점거하고, 사용자들이 임금 인상 요구를 받아들일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선언했다. 방직 공장의 남성 노동자들도 여기에 합류했다. 2월 26일 현재까지 이 노동자들은 작업에 복귀하지 않고 있다.

지난주 토요일(2월 24일)에는 공장 단지 내 광장에 파업 노동자 7000명이 모여 집회를 열었다. 이집트 북부에 있는 이 대공장에는 1만 4000명이 일하고 있다.

이 대공장은 2011년 이집트 혁명이 분출하게끔 한 파업 물결을 촉발했던 곳이다. 이런 투쟁들은 팔레스타인에 관한 선동과 결합되고 중동 전역에서 더 큰 반란이 일어날 길을 보여 줄 수 있다.

한 의류 공장에서 일하는 여성 관리자는 지난주 목요일(2월 22일) 자신의 공장에서 노동자들이 구호를 외치기 시작했다고 온라인 신문 <마다 마스크>에 전했다. 이후 다른 공장들에서도 노동자들이 구호를 외치자 노동자들이 일손을 놓았다고 한다.

공장 경비원들은 여성 노동자들이 마할라 섬유 단지 중심부에 있는 탈라트 하브 광장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공장문을 잠갔다. 그러나 반란의 기세에 밀려 경비원들은 공장문을 열 수밖에 없었다. 노동자들이 공장 안에서 집회를 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최근 이집트의 독재자 압둘파타흐 시시는 노동계급의 분노를 달래려고,



마할라의 한 대공장에서 전체 노동자의 절반가량이 참가한 2월 24일 파업 집회

국가에 고용된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을 인상한 바 있다. 그런데 마할라 노동자들 중 많은 이들의 월급은 시시가 발표한 금액보다 작다. 마할라의 ‘미스트 방직 기업’은 국가 소유이지만 최저임금 인상 결정이 적용되지 않았다. 국가 예산으로 운영되지 않는, 별도 법인의 계열사로 돼 있기 때문이다. 노동자들은 행진하면서 이렇게 외쳤다. “우리는 권리를 보장받길 원한다. 대통령의 결정 사항은 어디로 갔느냐?”

미스트 방직 공장의 한 노동자는 이렇게 말했다. “노동자들의 분노가 끓어 넘치고 있다. 한 달 임금이 4000이집트파운드[약 17.2만 원]이 못 된다. 근속연수가 길고, 또 최저 임금을

6000이집트파운드로 인상하겠다는 대통령 발표가 있었는데 말이다.

“우리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날마다 악몽 속에서 살고 있다.”

이번 파업은 또한 일자리를 지키는 투쟁이기도 하다. 앞에서 인용한 노동자는 이어서 이렇게 전했다. “경영 부실 탓에 공장 기계들이 오랫동안 가동되지 않았다. 신규 채용도 여러 해 동안 없었는데 이것은 경영자들이 자산을 팔아 치우고 우리를 해고하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다른 섬유 공장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사태는 더 커질 것이다.”

이집트의 ‘혁명적 사회주의자들(RS)’

은 마할라 노동자들이 2011년 혁명에서 했던 구실을 많은 사람들이 기억할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지금의 투쟁은 다른 맥락 속에서 전개되고 있다. 그간 시시 정권의 탄압은 노동운동이 가라앉는 데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그 결과 노동자 임금을 대폭 삭감할 기회가 열린 것이다. 그런 만큼 마할라 노동자들의 이번 파업은 기쁜 소식이자, 견디기 힘든 현 상황을 고려하면 매우 중요한 사건이다.”

반격에 나선 것은 마할라 노동자들만이 아니다. 이집트 수도권에 속한 ‘10월 6일 도시’에 있는 가전제품 기업 유니버설에서도 지난주에 이를 동안 파업이 벌어졌다. 노동자들은 월급 480이집트파운드[2만 원] 인상을 쟁취하고 작업에 복귀했다. 원래 사용자들은 파업이 계속되면 1월 임금 지급을 미루겠다고 위협했었다.

이집트와 요르단, 그 외의 중동 지역에서 노동자와 빈민의 투쟁이 크게 고조되면, 중동 일대를 주름잡는 제국주의와 시온주의에 커다란 위협이 될 것이다.

시시는 라파흐 국경을 봉쇄해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주민들을 가두고 생필품 등의 원조를 차단하는 것을 거두고 있다. 제국주의와 아랍 지배자들에 맞서는 경제적·정치적 반란은 모든 곳의 지배계급을 두려움에 떨게 할 것이다.

찰리 김버

출처 Charlie Kimber, ‘Workers in Egypt strike and occupy for a pay rise’ (2024.2.26) / 번역 김중환

▶ 2면에서 이어짐

‘국경 없는 의사회’ 사무총장: “다섯 살 아이가 죽고 싶다고 말합니다”

‘국경 없는 의사회’ 사무총장 크리스토퍼 록이 2월 22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회의에서 한 진술이다.

“이 전쟁에서 살아남은 아이들은 눈에 보이는 외상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트라우마도 지니게 될 것입니다. 거듭된 피란, 끊임없는 공포, 가족들이 말 그대로 사지가 찢기는 것을 눈앞에서 목격한 일 등 때문에 말이죠.

“이런 정신적 외상 때문에 다섯 살배기 아이들까지도 차라리 죽고 싶다고 말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가자지구의 인도적 위기 때문에 임산부들이 몇 달째 의료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처지에 내몰려 있습니다. 임산부들은 제대로 기능하는 분만실을 이용할 수가 없고, 비닐 천막이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건물 같은 곳에서 출산을 합니다.

“의료진들은 ‘WCNSF’라는 새로운 약어를 만들어 냈습니다. ‘부상당한 아동, 살아 있는 가족 없음’이라는 뜻이죠.

“미국이 상임이사국 지위를 이용해 지속 가능한 즉각 휴전이라는 가장 명백한 해결책을 채택하려는 노력을 고의로 가로막고 있는 데에 충격을 받습니다.

“현재 가자지구에서 인도적 대응이 이뤄지고 있다는 생각은 환상입니다. 이 전쟁이 국제법을 준수해 가며 벌어

지고 있다는 서사가 먹히게 하는 데에 유용한 환상이죠.

“더 많은 인도적 지원을 촉구한다는 말이 이 자리에서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하지만 가자지구에서는 날이 갈수록 모든 것이 줄기만 합니다. 공간도, 의약품도, 식량도, 물도, 안전도 모두 다요.”

출처 Charlie Kimber, ‘Binyamin Netanyahu unveils Israel’s plan for Gaza’ (2024. 2. 24) / 번역 김중환

이스라엘, 라파흐 지상전 개시일 발표

라파흐 대학살을 중단하라

“라마단까지 우리의 인질들이 돌아 오지 않으면 전투는 계속되고 라파흐 까지 확대될 것이라는 사실을 국제사회와 하마스 지도부는 알아야만 한다.”

이스라엘 전신내각에 참여하고 있는 국가통합당 대표 베니 간츠가 한 말이다.

올해 라마단은 3월 10일에 시작된다. 그때까지 팔레스타인인들이 항복하지 않으면 가자 주민들이 라마단을 기리지 못하게 하겠다고 위협한 것이다.

달리 말하면, 이스라엘군은 3월 10일까지 라파흐를 계속 공습한 뒤 지상전을 개시하겠다는 말이다.

이스라엘 총리 네타냐후는 극도로 야만적이 될 지상전 계획을 지지했다. 네타냐후는 현재 프랑스 파리에서 진행 중인 휴전과 인질 석방 협상이 성사되면 “얼마간 미뤄지겠지만, 결국 [라파흐를 공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것은 실시돼야 한다. ... 완전한 승리가 우리의 목표이고, 그게 눈앞에 있기 때문이다.” 협상 결과에 관계없이 라파흐로 진격할 것이라는 얘기다.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인들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짐승 취급을 당하며 남부의 소도시로 내몰렸다.

라파흐는 가자지구 최대 난민촌이 됐다. 팔레스타인인들은 그곳에서 앞으로 2주 동안 가슴 졸이는 하루하루를 보내게 될 것이다. 그 사이에 이스라엘군은 계속 공습해 팔레스타인인들을 죽이고 텐트촌을 불태울 것이다.

지난해 10월 7일 이후 이스라엘군은 이미 약 3만 명의 팔레스타인인들을 학살했다. 그들 중 대부분(약 2만 명)은 아이와 여성이었다.

이제 이스라엘군은 라파흐에서 지상전을 벌여 팔레스타인인들을 가자지구에서 아예 쫓아내려고 한다.

이스라엘이 피난민들의 안전을 보장해 줄 거라고 도대체 기대할 수 있겠는가.

그렇다면, 다시 북쪽으로 올라가야 하나? 아니면 이집트로 탈출해야 하나?

가자지구 중부와 북부는 파괴됐다.

자밀라 엘레이와(66세)는 라파흐를 필사적으로 탈출해 고향인 누세이라트(가자 중부)로 돌아갔다. 자밀라는 누세이라트가 “유령 마을”로 변했다고 말했다.

“주택들은 그저 파손된 것이 아니었어요. 불도저가 밀어 치워 버렸어요. 내가 살던 근처는 아무것도 없고 모래만 있는 텅 빈 들판이 됐어요. 집이라고는 없어요. 우리 이웃과 가족들의 집이 죄



이제 어디로 가야 하나 ... 140만여 명이 대피해 있는 라파흐의 난민촌

다 없어졌어요.”

식량과 물을 구하는 것은 라파흐에서 보다 더 어렵다. “슈퍼마켓도 없고 빵집도 없어 사람이 여기에서 살 수 있을 거라는 표징이 없어요.”(미국의 중동 전문 매체 <몬도와이스>, 2월 18일 자)

사람들이 라파흐에서 쫓겨나 이런 상황으로 내몰린다면 굶주림, 물 부족, 전염병으로 폐죽음을 당할 것이다.

도살장

가자지구 남부에서는 이스라엘군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팔레스타인인들을 학살하고 있다. 최근에만 수백 명이 폭격으로 사망했다. 이스라엘 군대는 칸 유니스의 나세르 병원을 공격해 폐원 위기에 빠뜨렸다. 나세르 병원은 가자지구에서 가동되고 있는 최후의 대형 병원이다.

이집트 쪽 라파흐 국경은 이집트 독재자 엘시시가 봉쇄했다. 엘시시는 이스라엘의 인종 청소 계획에 적극 공모하고 있다.

엘시시 정권은 국경 지대인 시나이반도 사막 지대에 가자지구에서 쫓겨난 사람들을 수용할 수용소를 만들고 있다.

또, 엘시시 정권은 여러 해 동안 아이시시(ISIS)를 상대로 “테러와의 전쟁”을 벌이면서 그 지역 베두인족을 강제로 추방해 왔다.

그러나 베두인족은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개전 이래 사막에 갇힌 팔레스타인인들을 돕고, 지난해 11월 초 라파흐 국경이 부분 개방되자 가자지구에서 온 팔레스타인인 부상자들을 구호했다.

이런 사실들은 엘시시 정권이 이스라엘의 제2의 나크바(대재앙)에 공모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이집트 지배자들은 수많은 팔레스타인인들이 이집트로 몰려올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휩싸여 있다.

이집트 경제가 극도로 취약한 상황에서(2023년 이집트 국가 채무는 국내총생산(GDP)의 92.9퍼센트에 이른다), 팔레스타인인들의 대거 유입은 정치적 급진화와 혁명적 불안을 촉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엘시시 정권은 높다란 장벽과 난민

촌을 건설해, 이스라엘 및 서방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2011년 혁명의 재발을 피하고자 한다.

2월 19일 레바논에서는 엘시시 정권의 범죄적 공모 행위에 분노한 시위대가 베이루트 주재 이집트 대사관 입구를 막고 시위했다.(본지에 실린 ‘레바논 활동가가 전한다: 이집트 대사관 입구를 막고 이스라엘과 공모하는 이집트 정권 규탄하다’를 보시오.)

시위대는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국경을 즉각 개방하고 식량과 의약품을 지원하라! 부상자들을 안전한 곳으로 후송하라! 시나이반도 수용소 건립을 중단하라! 이스라엘 대사관을 이집트에서 추방하라!

요르단에서도 이스라엘에 공모하는 자국 정권을 규탄하는 대규모 시위가 2월 들어 연속해서 조직됐다. 요르단을 통해 이스라엘로 향하는 물자 수송을 중단하라는 것이 핵심 요구였다.

홍해 위기 때문에 걸프 국가들에서 이스라엘로 물자를 수송하는 데서 요르단이 중요한 통로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시위대는 요르단 정권의 정책을 “수치스러운 다리”라고 비난했다. 시위대는 이스라엘로 갈 트럭들이 있는 거리를 따라 인간 사슬을 만들었다.

김인식

이스라엘, 서안지구 침공 강화

이스라엘은 서안지구 침공을 계속하고 있다.

지난주 이스라엘군은 헤브론 인근 움알카이르 마을을 들쭉시키고 마을 주민인 에이두 씨를 체포했다.

에이두 씨는 지난해 11월 <소셜리스트 워커>에 다음과 같이 전한 바 있다. “10월 7일 이전에도 상황은 좋지 않았습니다. 정착자들의 공격이 10월 7일에 시작된 것은 아니었지만, 그 후 더 심해졌습니다.

“이스라엘군과 정착자들이 도로를 막고 우리를 고립시켰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주요 고속도로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이스라엘군은 베들레헴 서쪽에 있는 후산 마을의 땅을 불도저로 밀어 버렸다.

후산 마을 이장인 자말 사바틴

씨는 이렇게 말했다. “그들은 식민 도로를 건설할 목적으로, 마을 동쪽 입구에서 분리 장벽을 따라 길이 500미터, 폭 20미터에 걸쳐 마을 주민들의 땅을 군용 불도저로 밀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서안지구에서 아직 저항을 진압하지 못하고 있다.

헤브론(할릴)에 위치한 파타(팔레스타인민족해방운동)의 군사 조직인 알아크사 여단은 카르메이추르 이스라엘 정착촌을 공격했다고 발표했다.

툴카를 여단은 툭카를 난민촌에서 이스라엘 점령군과 싸웠다.

소피 스콰이어

출처 Sophie Squire, 'Israel attacks Nasser Hospital in southern Gaza and steps up West Bank invasion' (2024. 2. 20) / 번역 김동욱

레바논 활동가가 전한다

이집트 대사관 입구를 막고 이스라엘과 공모하는 이집트 정권 규탄하다

“이집트 대사관을 표적으로 삼은 것은 바로 이집트 정권이 가자지구 봉쇄의 공범이기 때문입니다.”

레바논인 활동가 하디가 <소셜리스트 워커>에 전한 말이다. 하디와 그의 동료들은 19일 월요일 레바논 베이루트에 있는 이집트 대사관 입구를 막았다. 이집트 국가가 이스라엘의 인종 학살에 협력하고 있는 것에 분노를 표하기 위해서였다.

시위대는 또한 대사관 인근 도로를 막고 도로에 붉은 페인트를 부었다. 한 시위 참가자는 이런 팻말을 들었다. “너희가 가자지구를 봉쇄하면, 우리는 너희 대사관을 봉쇄한다.”

이 행동은 이집트가 시나이 반도에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인들을 수용할 시설을 지으려 한다는 계획이 보도된 직후 벌어졌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집트 관료의 말을 인용해 이집트 정부가 10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장벽으로 둘러싸인 공간”을 짓고 있다고 전했다.

이집트 대사관 앞에서 시위한 사람들은 탄압을 받았다. “내부 보안 병력이 우리를 가로막으며, 우리의 요구를 억누르고 대사관 건물을 지키려고 잔인하게 대응했습니다.”

“장애가 있는 사람들, 휠체어를 탄 사람들이 있었는데도 저들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하디는 이렇게 밝혔다. “우리의 요구



“가자지구 봉쇄 해제하라” 2월 19일 레바논 베이루트에 있는 이집트 대사관 앞에서 열린 항의 시위

는 가자지구로 난 검문소를 개방해 식량과 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기자들이 라파흐를 통해 가자지구로 들어가 이스라엘의 점령 범죄를 기록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우리는 또한 투사들이 팔레스타인인들의 무장 저항과 가자지구·팔레스

타인 방어 활동에 지원하는 것을 이집트 국가와 아랍 지배자들이 가로막지 말기를 바랍니다.”

레바논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분노가 가라앉을 조짐은 없다. 하디는 이렇게 전했다. “그런 분노는 아주 깊고 또 광범합니다.”

“분노는 이스라엘 점령 세력이 팔레스타인인들, 특히 가자지구 사람들에

게 식민 폭력·억압을 계속 자행하는 데서 비롯합니다.

“그 분노로 레바논에서는 정착자 식민주의에 반대하고 팔레스타인인들의 해방 투쟁을 지지하는 시위 등 각종 전투적 행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점령 당국은 10월 8일 이래로 레바논의 민간 기반시설을 계속 공격하고 있기도 합니다.”

19일 월요일 이스라엘은 레바논 남부 도시 가지예를 폭격했다. 10월 7일 이래로 이스라엘은 레바논인들을 최소 10명 이상 살해했다.

이스라엘은 이런 행위를 정당화하며 이 공격이 레바논의 저항 단체 헤즈볼라를 뿌리 뽑기 위협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하디는 레바논인들이 단지 이스라엘 국가에만 분노하는 것은 아니라고 전했다.

“레바논인들은 아랍 지배자들이 이스라엘의 점령을 지원하고 공모하는 것을 견딜 수 없습니다.”

“이집트 정권 등 아랍 지배자들의 이런 배신은 심각한 불의입니다. 우리는 이 지역에서 반동적 정권에 맞선 우리의 투쟁이 팔레스타인 독립 투쟁과 하나임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소피 스콰이어

출처 Sophie Squire, “Our struggle goes hand in hand with Palestinians’ struggle”—Lebanese protester (2024. 2. 21) / 번역 김준환

미국

팔레스타인계 민주당 하원의원, 바이든 찍지 말라고 호소

미국 하원 내 유일한 팔레스타인계 의원 라시다 툴라임은 현 대통령 바이든에게 투표하지 말라고 민주당원들에게 호소하고 있다.

최근 올린 영상에서 툴라임은 미시건주(州) 민주당원들에게 민주당 대선 후보 예비 경선에서 바이든의 재선에 대해 “지지 후보 없음” 투표하라고 호소했다.

미국에서 “지지 후보 없음” 투표라 함은, 당원들이 그 당에 투표는 하겠지만 그 후보에 대한 지지를 약속하지는

않는다는 의사를 표하는 것이다.

툴라임은 바이든이 이스라엘에 약 140억 달러 규모의 원조를 제공하는 방안을 하원에서 통과시키려 계속 애쓰자 항의에 나선 것이다.

“이제 그만이라고 경종을 울릴 투표층을 형성해야 한다. 우리는 전쟁·폭탄·파괴를 지원하는 나라를 원하지 않는다. 우리는 생명을 지지하기를 바란다. 가자지구에서 살해당한 모든 생명을 위해 일어서기를 원하는 것이다.”

툴라임의 입장은 민주당 진보파 하원의원 그룹인 ‘스쿼드’의 다른 구성원들과 엇갈리는 것이었다.

지난주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 하원의원은 바이든을 옹호하며 “미국 현대사상 가장 성공적인 대통령의 한 명”이라고 묘사했다.

오카시오-코르테스는 바이든을 전심전력으로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내 좌파들은 바이든과 경합할 후보를 세울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민주당 경선에서 바이든의 유일한 경쟁자는 미네소타주 주류 기업의 후계자 딘 필립스다.

‘스쿼드’의 분열은 선거주의 정치의 형편없는 한계를 보여 준다.

바이든의 전쟁 행위와 노동계급 배신에 맞선 진정한 도전은 거리와 일터에서 나올 것이다.

소피 스콰이어

출처 Sophie Squire, ‘US rep urges Democrats not to vote for Genocide Joe’ (2024. 2. 20) / 번역 김준환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과 파업

노동계급 일부로서의 요구를 내놓았어야 했다

장호중 의사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발표에 반발해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 수가 1만여 명으로 늘어났다. 그 중 9천여 명은 실제로 병원에 나오지 않고 있다. 일주일째 이어진 파업에 대형병원의 응급실과 수술실, 중환자실 등 필수 시설의 가동이 크게 저하됐다.

정부는 의사면허 정지·취소, 수사와 기소 등 엄포를 놓고 있다. 지난해 11월 의사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의사 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의료법 개정안이 시행됐는데, 정부가 이를 이용해 전공의들을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전공의들이 이전처럼 명시적 지휘 체계를 갖춘 파업 대신 사직서 제출과 근무지 이탈 등의 형식을 취한 이유이기도 하다.

정부의 압박에도 집단 사직과 파업에 동참하는 전공의 수는 계속 늘고 있다. 의대 졸업생들도 수련의(인턴) 임용을 포기하고 있고, 집단 휴학에 동참하는 학생들도 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오는 3월 3일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고 있다.

그래서 엄포를 놓던 정부가 이제 와서 부랴부랴 공공병원들을 찾는 모습에서 오히려 정부의 무능이 엿보인다.

사실, 의대 정원 확대로 필수의료 부



의대 정원은 늘어야 한다. 그러나 의료를 시장에 내맡겨 뒤흔드는 필수의료 공백을 해결할 수 없다. 2월 26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

족 문제가 얼마나 개선될지에 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자신이 필수의료에 충분히 투자하지 않고 의사들의 진로를 시장에 내맡기고 있기 때문이다.

늘어난 2000명이 모두 피부과·성형외과로 갈 것이라는 말은 지나친 편견을 담고 있지만, 정원 확대만으로는

필수의료이 아니라 수익이 많고 부담이 적은 곳으로 쏠리는 경향 자체를 막을 수 없다.

이런 비판을 의식해 정부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내놓았지만 재정 지원 계획이 모호하고 턱없이 부족해 개선 여부가 불투명하다.

근본적으로, 재정 지출 절감과 의료 '산업' 활성화를 정책 기조로 삼고 있는 윤석열 정부가 이윤을 내기 어려운 필수의료 분야에 충분히 투자하리라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전공의들의 의대 증원 백지화 요구를 지지할 수는 없다. 노동자 등 서민층의 이익에 반하기 때문이다

필수의료

의사 수만 늘린다고 필수의료 공백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의사 자체가 지금처럼 부족해서는 오늘날 늘어난 의료 수요를 충족하는 데 근본적 한계가 있다는 것도 명백하다.

한국의 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2.6명으로 OECD 국가 중 꼴찌에서 둘째다. OECD 평균은 3.7명으로, 단순 계산해도 5만여 명이 적은 셈이다. 여기에 인구 고령화로 인한 의료 수요 증가 추세를 고려하면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의사 인력 부족은 환자와 보호자뿐

아니라 병원 노동자 전체에게도 큰 부담이 된다. 2016년 전공의들의 노동시간을 주당 80시간으로 제한하는 법이 통과되자 간호사 등 다른 병원 노동자들의 노동강도가 높아진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전공의들의 의대 증원 반대 요구가 노동계급의 일부로서 자신을 착취하는 사용자에게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계급의 다른 부위에 그 부담을 지우는 것이다.

의대 증원 자체는 전공의들의 노동 조건에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당장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올해 전공의 생활을 시작할 의사도 내년 의대 신입생이 의사 면허를 취득할 때에는 더는 전공의가 아니다.

그럼에도 전공의들이 이토록 크게 반발하는 것은 시장 경제 하에서 장차 의사 사이의 경쟁이 격화될 것을 우려해서다. 일부는 여전히 고용된 의사로 남아겠지만 어쨌든 시장에서는 의사 수가 적은 것이 조건을 지키는 데에 유리하다고 여기는 것이다.

전문의 자격 취득 후 상급종합병원에 남기 어려운 한편, 더 많은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개원의로 나아갈 수 있다는 유혹 때문에 많은 전공의가 자신을 미래의 개원의로 여긴다. 2020년 전문의 개원의의 연평균 소득은 정부 집계

▶ 7면으로 이어짐

독자·지지자들의 구독료와 후원으로 발행하는 좌파 주간 신문

노동자 연대 정기구독/후원하세요

정기구독료: 연 50,000원

입금 계좌 (예금주: (주) 레프트미디어)
국민은행 020601-04-080896, 농협 301-0010-1643-71

※ 웹사이트에서 신용카드·핸드폰 결제 가능



wspaper.org/subs2

구독 문의: 02-777-2792, ws@wspaper.org



wspaper.org/online

온라인에서 만나 보세요

새 기사가 계속 업데이트됩니다

f 노동자 연대
@wspaper

o wspaper_org
o 노동자연대TV

스마트폰 앱으로 만나 보세요

▶ "노동자 연대" 검색

▶ 텔레그램 '노동자 연대 알리미'



아침에 읽는 <노동자 연대>

매일 아침 7시 30분 이메일로 기사를 배송해 드립니다.
<노동자 연대>와 함께 힘차게 하루를 시작하세요!



ISSN 2005-8217



발행인 김인식 편집인 김인식 사업자 명칭: (주)레프트미디어 제호: 노동자 연대
발행연월일(창간호): 2009년 3월 14일 인쇄인: (주)디엠코리아 현재호: 등록번호: 서울다08179
(주간) 등록연월일: 2009년 1월 12일 주소: 서울시 성동구 하왕십리동 946-16 4층
전화: 02-777-2792 제보: 02-777-2791 팩스: 02-6499-2791 email: ws@wspaper.org

9 772005 821003 08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닷컴 버블을 닮아 가는 AI 열풍

정치 뉴스에는 나쁜 소식이 연일 보도되고 있다. 그러나 주식 시장 상태를 보면 그런 현실을 못 보고 지나칠지도 모른다. 2월 22일 지난주 목요일 미국, 유럽, 일본의 주요 주식 시장이 기록을 경신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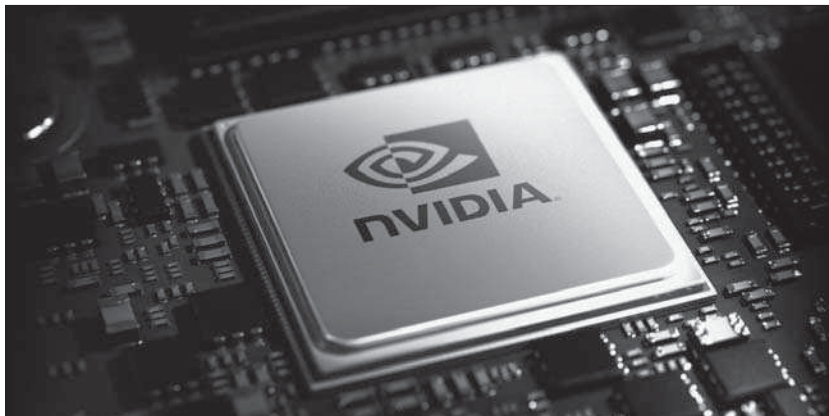
낙관이 널리 퍼져 있다. 인플레이션이 진정되고 있고, 그래서 중앙은행들이 2022~2023년의 급격한 금리 인상을 되돌릴 것이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대가 얼마나 빨리 현실화될지는 확신하지 못하는 분위기도 있다.

지난주 주식 가격 급등의 중심에는 지난 몇 년간 상당한 수익을 낸 기술 분야가 있다. 그러나 이번 대박의 주인공은 기존 빅테크 기업이 아니라 이전까지는 잘 알려지지 않았던 실리콘 밸리 기업인 엔비디아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이렇게 묘사한다. “2년 전에만 해도 엔비디아는 대부분 그래픽 카드[컴퓨터에서 그래픽 처리를 전담하는 장치 — 역재를 팔아서 수익을 냈다. 엔비디아는 열성 게이머들 사이에서나 익숙한 기업이었다.”

지난주 엔비디아는 지난해 순이익이 14억 달러에서 120억 달러 이상으로 올랐다고 발표했다. 그러자 엔비디아의 시가 총액은 2조 달러로 급등했다. 엔비디아는 아마존과 구글을 제치고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 다음가는 시가 총액 세계 3위 기업이 됐다.

“정교한 첨단 표절 기관”

무엇이 이런 변화를 낳았는가? 두 글자로 답하면 “AI.” 즉 인공지능 때문이다. 요즘 기술계의 최대 화제는 거대언어모델을 이용한 챗GPT 같은 형태의 AI를 둘러싸고 나오고 있다. 엔비디아는 이런 모델을 학습시키고



엔비디아발 AI 열풍을 타고 시장이 거대한 도박판을 벌이고 있다

구동하는 데 쓰는 컴퓨터 칩을 대량 생산한다.

현재 이와 관련해 두 가지 과장된 홍보가 벌어지고 있다. 하나는 챗GPT 등의 등장으로 이제 기계가 인간 지능에 필적하고 심지어 인간 지능을 넘어섰다는 주장이다. 터무니 없는 소리다. 거대언어모델이 하는 일은 기본적으로 방대한 양의 정보를 받아서 처리하는 것이다. SF 작가인 테드 창이 묘사했듯이 이것은 진정한 인공지능이 아니라 “응용통계학”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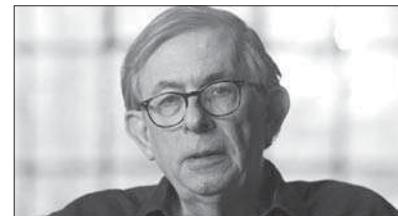
제국주의의 탁월한 반대자일 뿐만 아니라 언어와 정신에 관한 이론가이기도 한 노암 촘스키의 평가는 더 혹독하다. 촘스키는 챗GPT를 “정교한 첨단 표절 기관”이라고 일컬었다. 촘스키는 이렇게 썼다. “인간의 정신은 챗GPT나 그 비슷한 것들과 전혀 다르다. 챗GPT 같은 것들은 통계학에 기초한 거대한 패턴 검색 기관으로, 어마어마한 양의 데이터를 먹여 치운 뒤 일상 대화에서 다음에 나올 법한 말이나 과학 질문에 대한 개연성이 높은 답을 추론하는 식으로 작동한다. 반면, 인간의 정신은 적은 양의 정보로 작동하는 놀라운 만큼 효율적이면서도 우아한 시스템이다.

인간의 정신은 수많은 데이터 사이에서 앞뒤 가리지 않고 상관관계를 찾아내는 게 아니라 설명을 창조해 내려고 노력한다.”

희망 회로

첫째 과장은 둘째 과장과 관련 있다. 바로 인공지능이 경제에 미칠 영향에 관한 것이다. 많은 논평가들은 챗GPT 등이 정보를 처리하는 많은 화이트칼라 노동자를 대체해서 생산성과 이윤을 높일 것이라고 주장한다. 법률, 보건, 금융 등이 그런 분야로 거론된다. 마테오 파스퀼렐리가 그의 흥미진진한 저서 <주인의 눈>에서 보여 주듯이, 실제로 인공지능은 역사적으로 언제나 노동자들의 지식을 이용하는 수단이자, 생산 영역에서 사용자가 지배하는 권력 위계를 강화하는 수단 구실을 했다.

인공지능 칩에 대한 투자는 어마어마하게 늘었다. 엔비디아의 최고경영자 제슨 황은 데이터 센터에 쓰이는 장비 전체의 총 가치가 향후 4~5년 동안 2조 달러로 상승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 외에도 자기 이익에 부합하는 예측을 내놓는 자들이



알렉스 캘리니코스

런던대학교 킹스칼리지 유럽학 명예교수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 중앙위원장

있는데, 챗GPT를 개발한 오픈AI의 논란 많은 최고경영자 샘 올트먼도 AI 투자 규모가 앞으로 대단할 거라고 얘기한다.

이런 예측들이 일부 맞아떨어진다고 할지라도 엔비디아는 계속 시장을 지배하지 못할 수 있다. 거대 기술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은 독자적으로 컴퓨터 칩을 생산하기 시작했고, 또 다른 컴퓨터 칩 생산 기업인 AMD도 엔비디아를 따라 잡고 있다.

현재 펼쳐지는 광경은 1990년대 말 ‘닷컴 버블’을 닮아 가고 있다. 그 거품을 추동한 것은 당시 초창기였던 인터넷에 관한 과장된 홍보였다. 지구를 몇 바퀴 휘감고도 남을 정도로 많은 광섬유 케이블이 설치됐다. 그런 뒤 2000년에 경제가 추락했다. 이는 2007~2009년에 오는 더 큰 세계 금융 공황의 전조이기도 했다.

한 기술 전략가는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이렇게 논평했다. “[일부 분야에서 — 캘리니코스] 가치 평가와 펀더멘털 사이에 불일치가 있다. 2000년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 시장은 … 거대한 도박판을 벌이고 있다.”

번역 이원웅

▶ 6면에서 이어짐

로도 3억 원가량으로 봉직의 임금에 비해 1억 원가량 많다.(보건복지부, 보건의료인력실태조사 2021)

그러다 보니 병원 사용자와 정부에게 조건 개선을 요구하기보다 시장 논리에 순응하며 노동계급의 다른 부위에 부담을 떠넘기는 프티부르주아적 의식을 갖는 경향이 있는 것이다. 전공의들이 자본가적 의협의 영향을 크게

받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나 실제로는 누구나 개원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모두 개원을 선호하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다른 많은 전문직 노동자들과 마찬가지로 병원 자본의 집중과 함께 의사들의 계급적 지위도 더욱 분화하고 있다.

전공의는 물론이고 이제 개원의보다 더 많아진 봉직의들도(사실상 관리자

구실을 하는 사람들을 제외하면) 자신들의 진정한 이익을 지키려면 노동계급적 요구를 내놓고 싸워야 한다.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것은 잘못된 요구일 뿐 아니라, 일시적으로는 자신들의 조건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장기 사용자에게 맞설 힘도 약화시키는 효과를 낸다. 의사 사이의 경쟁이 불가피하다는 현실을 당

연시하고, 노동계급의 다른 부분에 고통을 전가함으로써 단결과 연대를 불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의대 정원은 늘어야 한다. 공공의료 확대돼야 한다. 또한 전공의들은 의협이 아니라 병원 노동자들과 단결해 공동의 사용자에게 맞서 싸워야 한다. 노동계급의 일부다운 요구와 대안을 추구해야 한다.

왜 청년 자살·자해가 급증하는가?

양효영

최근 자살과 자해 시도로 응급실에 방문하는 사람 중 절반은 10대와 20대다.

국립중앙의료원과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최근 발간한 '2021-2022 응급실 자해·자살 시도자 내원 현황'을 보면, 2022년 자해·자살 시도로 응급실을 이용한 4만 3268건 중 20대가 1만 2000여 건, 10대가 7500여 건으로, 전체의 46퍼센트를 차지했다.

한국은 청년 자살률이 OECD 1위이다. 2022년 기준으로 OECD 평균(10.6명)의 2배가 넘는다(22.6명).

노인 연령층에서 주로 발생하던 고독사는 이제 청년들 사이에서도 적잖다.

40세 미만 청년 고독사는 매년 70~100명가량으로 추정된다(김원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2021년 국정감사 보도 자료).

'5~10평의 원룸, 배달 음식, 비어 있는 냉장고 ... 다른 한편에는 각종 수험서가 쌓여 있고, 컴퓨터에는 빼곡히 적은 이력서 파일들이 저장돼 있다.' 유품 정리업체 관계자들이 전하는 고독사한 청년들이 살던 방의 모습이다.

물에 빠지지 않기 위해 버둥거리다 힘이 빠지고 지쳐서 가라앉아 버리는 모습. 오늘날 청년을 생각하면 그런 그림이 떠오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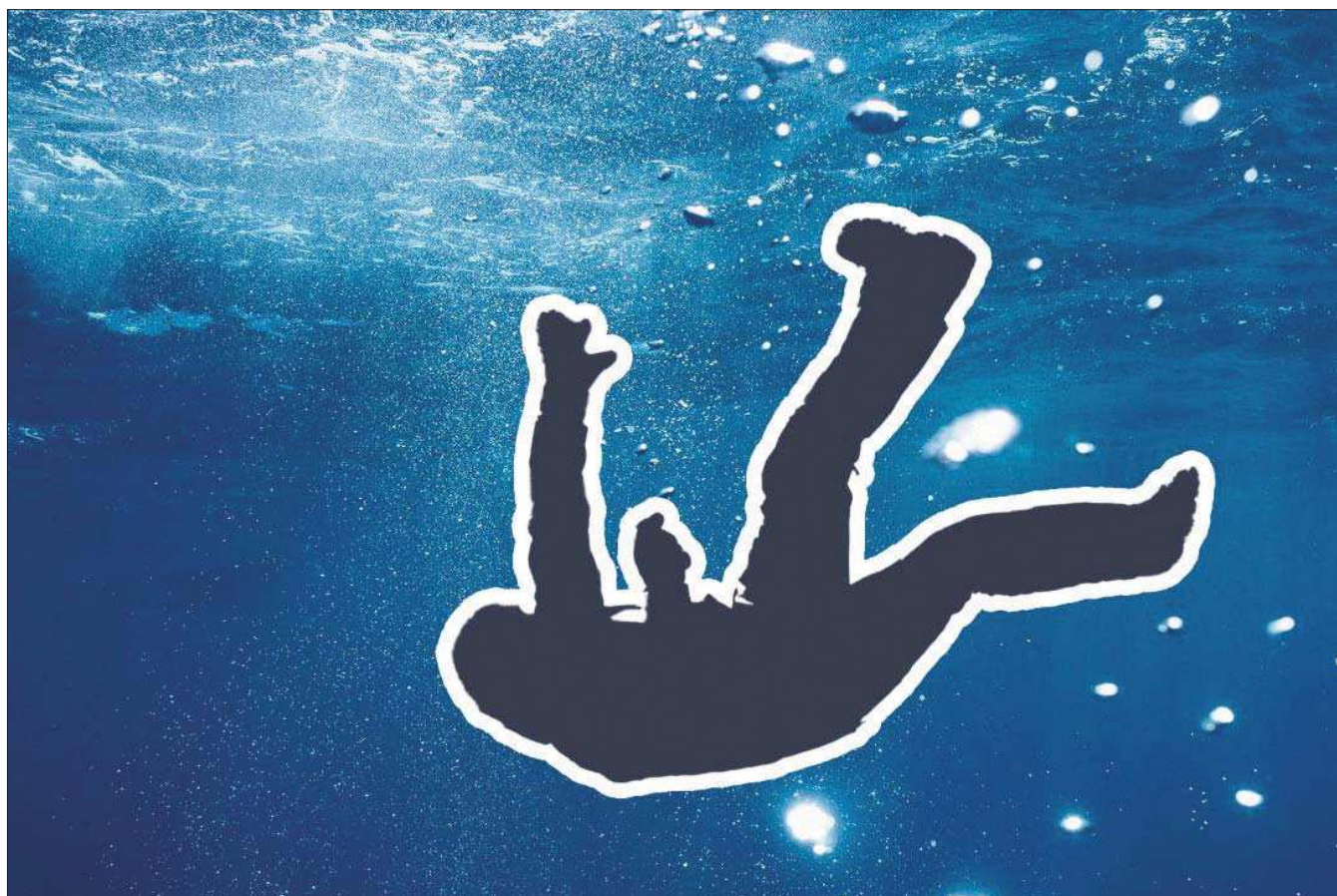
"어려선 마음고생, 커가면서는 외로움에 시달리다가, 고독사로 죽는 첫 세대"(청년 자살 문제를 다룬 책 《가장 외로운 선택》 중)라는 말이 마음 아프게 와닿는다.

실업과 취업난

청년들의 자살과 고독사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실업이다.

윤석열 정부는 2023년 청년 실업률이 역대 최저라며 자화자찬했다. 그러나 이런 지표 이면에는 청년 고용률이 떨어지고, 취직 단념자가 크게 늘어난 현실이 있다. '쉬었음' 청년은 20대와 30대를 합치면 무려 60만 6000명에 달한다(통계청, 2023년 6월 고용동향).

취업난은 청년들에게 경제적 어려움 뿐 아니라 고독을 안긴다. 부모는 늙어가는데 자신은 아직도 '어른'으로 자립하지 못하고 짐이 되고 있다는 죄책감 때문에 가족과 연락을 끊어 버리는 일이 많다. 친구들마저 하나둘 일자리를 잡으면 연락하기도 점점 부담스러워진다.



양효영 기자 제공

**물에 빠지지 않기 위해
버둥거리다 힘이 빠지고 지쳐서
가라앉아 버리는 모습.
오늘날 청년을 생각하면
그런 그림이 떠오른다**

경쟁과 소외에 찌들고 주눅 들어 버린 청년은 혼자만의 방으로 점점 더 숨어들어 간다.

지난해 보건복지부의 온라인 설문 결과를 보면, '은둔형 외톨이'는 청년층에서 51만여 명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사회적으로 단절된 은둔형 외톨이는 정신적 문제에 더욱 취약해진다.

이들 중 75.4퍼센트가 자살을 생각했다고 답했는데, 그 이유로는 취업 관련 어려움(24.1퍼센트)이 가장 많았다.

외로움도 위험하다. 하루 종일 느끼는 외로움은 조기 사망 가능성을 26~29퍼센트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이는 매일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해악에 맞먹는다(비벡 머시 미국 공중보건서비스단(PHSCC) 단장 겸 의무총감, '외로움과 고립감이라는 유행병').

공황장애

간신히 일자리를 잡아 바늘구멍 같은 취업문에 들어간 청년들도 고통스럽긴 마찬가지다.

보통 저질 일자리와 장시간 노동에 시달린다.

청년층 64.4퍼센트가 첫 직장에서 받는 월급이 200만 원 미만이었다(2023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에 자산도 없는 청년들이 홀로 생계를 제대로 꾸려 갈 수 없는 금액이다.

직장은 긴장과 스트레스로 가득 찬 곳이기도 하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는 청년 노동자의 업무 압박감과 공황장애를 사실적으로 그려 큰 공감을 얻었다.

사람들로 빈틈없이 들어차 숨도 쉬기 힘든 지하철 출퇴근 길 속에서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나' 하는 자괴감과 두려움이 올라온다. '갓생' 살기, 미라클 모닝 등 자기계발이 청년층 사이에서 관심을 끄는 것은 어떻게든 팍팍한 삶 속에서 작은 보람과 희망을 느껴 보려는 발버둥이기도 하다.

그러나 많은 청년 노동자는 보통 일을 마치고 나면 기진맥진해, 여가나 자기계발은커녕 누워서 핸드폰 보다가 잠들기 바쁘다.

청년 여성의 자살률 증가 : 기대와 현실의 간극

특히 청년 여성의 자살률이 급증하고 있다. 이는 코로나와 경제 불황 등을 겪으며 노동시장에서 여성들이 더욱 취약한 처지에 몰리게 된 것과 관련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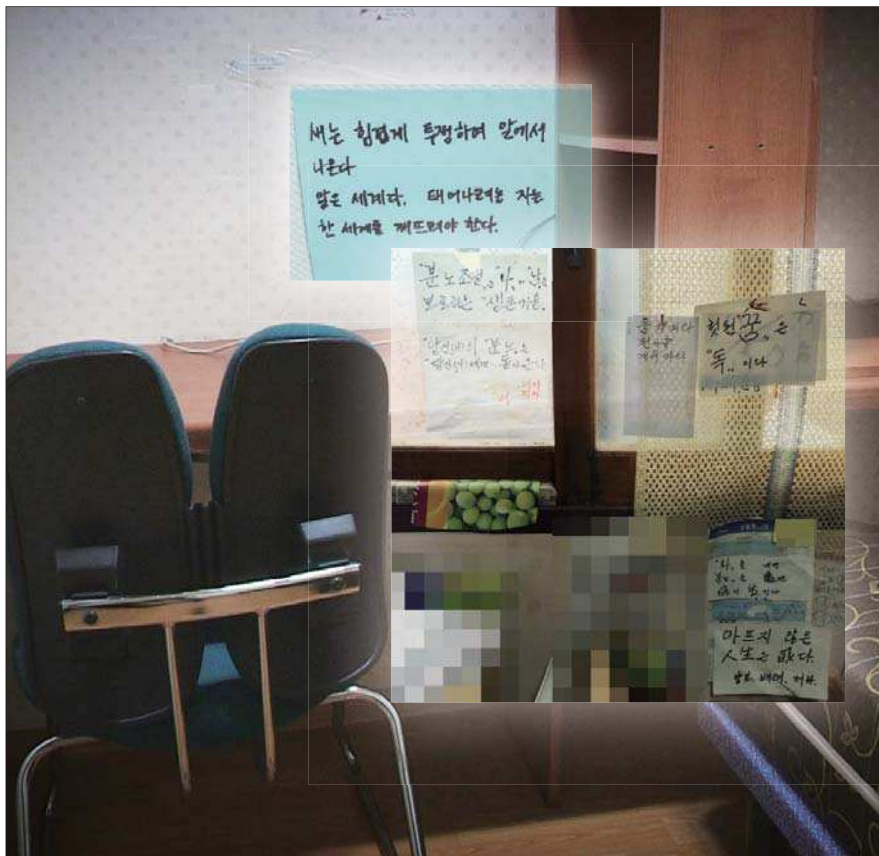
2021년 통계청 조사를 보면, 20대 여성의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은 2017년에 비교해 71.9퍼센트 늘어났다(11.4명 → 19.6명). 같은 기간 20대 남성의 자살률은 30.3퍼센트(20.8명 → 27.1명) 증가했다.

최근 비정규직, 시간제 노동, 청년 니트(NEET: 학업, 일,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 비율 증가와 청년 여성의 자살률 간에 정(+)의 관계가 존재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이민아 중앙대 교수, '노동시장에서의 위기심화와 청년 여성 자살률').

20~24세 여성 비경제활동인구(취업 준비, 심신 장애, 쉬었음 등을 포괄)를 기준으로 니트 비율을 분석한 결과는 나이대 여성의 자살률과 비슷한 상승·하락 그래프를 보였다.

이현주 〈노동자 연대〉 기자는 "최근 젊은 여성들의 자살률 증가 폭이 커지고 있는 것은 여성들의 기대감과 현실 사이의 간극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하고 지적한 바 있다(코로나 블루와 자살 — 인간의 필요가 아니라 이윤을 우선하는 자본주의 탓).

오늘날 많은 여성이 무엇이든 될 수 있다는 기대를 하고 있지만, 노동시장에서는 여전한 여성 차별의 벽에 부딪힌다. 채용부터 승진까지 체계적 차별에 시달린다. 외모와 신체를 가꿔야 한다는 압력이 여성들을 심각하게 짓누른다. 또한 많은 여성이 열악한 노동환



고독사한 청년들이 살던 방 안에는 살고자 했던 발버둥의 흔적이 가득하다

경에 내몰려 있다는 것은 성희롱, 성추행 등의 위협에도 노출되기 쉽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대와 현실의 큰 간극은 여성들을 더욱 좌절감에 빠지게 할 수 있다.

자기 혐오와 학대

자본주의 체제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이 쓸모없고 하찮은 존재라고 생각하게 하고 끝없이 열등감과 패배감이 들게 만든다.

이처럼 냉혹한 경쟁이 지배하는 숨막히는 사회에서 자신에게 상처를 주는 자해가 늘어나는 건 어찌 보면 놀라운 일이 아니다.

자해가 곧장 자살로 이어지는 건 아니다. 그러나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 중 적잖은 수가 자해 경험이 있다.

자해 시도자들은 분노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멈추기 위해서, 편안한 마음을 느끼기 위해서, 스스로에게 벌을 줌으로써 죄책감을 덜고 싶어서, 무기력한 마음에 자극을 주고 싶어서 등 여러 이유로 자해를 한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방어기제로 해리(dissociation)를 경험하기도 한다. 해리는 감당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상황에 직면해 잠시 동안 자기 스스로를 정신적·심리적 과정보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이다.

때로 자해는 이런 분리를 잠시 통합시켜 준다. 뺨을 때려서 얼얼함을 느끼

면 잠시 멍했던 기분이 현실로 돌아오게 되는 것처럼, 자해 시도자 중 일부는 자해를 통해서 자기 통제감을 느낀다. 즉각적인 신체의 고통, 뜨거운 선혈, 아드레날린 등을 통해 자신을 옥죄는 긴장을 잠시 잊고, 자신이 현실적으로 살아 있다고 느끼기도 한다.

죽음에 가까워지는 행위를 통해서 살아 있음을 느낀다는 건 슬픈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마음의 정치학: 마르크스주의와 정신적 고통》(Politics of the Mind: Marxism and Mental Distress, 국내 미번역) 저자인 이언 퍼저슨은 지난 수십 년간 정신적 고통이 크게 증대된 배경에는 저조한 수준의 계급투쟁이 있다고 지적한다.

“사람들이 집단적 투쟁을 벌이지 않으면 차별을 내면화하고 우울하고 불안해지기 더 쉽다. 반면 집단적 투쟁에 나서면 외로움이나 무력감을 덜 느끼게 된다.”(2023년 5월 12일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

투쟁의 규모가 크고 전투적이 되면 사람들 사이에서 연대감도 상승하고, 고립감도 적어지게 된다. 그랬을 때 사람들이 세계가 변할 수 있다는 희망을 발견하고 삶의 의지를 가질 가능성도 커진다.

《자살론》을 쓴 프랑스 사회학자 에밀 뒤르켐은 1848년 프랑스 혁명이 전 유럽을 뒤흔들었을 때 유럽 전체의 자살률이 격감한 것을 발견했다.

“자살은 사회가 잘못 조직된 것의 증상” — 마르크스

카를 마르크스는 일찍이 자살이 사회적 현상임을 지적하고, 자살을 택한 사람들에게 큰 동정심을 가졌다. 마르크스는 프랑스 경찰관이자 시인이었던 피세가 쓴 자살에 관한 글을 독일어로 번역해 발간하기도 했는데, 피세는 사회의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자살에 내몰리는 현실에 분개했다.

특히 피세는 자살한 사람을 비난하거나 명예를 훼손해 자살을 막으려 하는 시도에 대해서도 분노했다. 그런 낙인찍기는 오히려 사회의 “비열함”만 보여 줄 뿐이라고 지적했다.

한국 사회에서 자살자에 대한 이런 비난이 최근에는 많이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자살이나 우울증 등을 개인의 유약한 의지 문제로 보는 시선이 적잖다.

“모멸적인 처벌과 자살자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는 것으로 자살을 예방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고들 한다. 더는 자기에 대해 변호할 생각이 없어서 그 자리에 없는 사람들을 낙인찍어 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불행한 자들은 그런 낙인을 걱정하지 않는다.”

“세상을 떠나고자 하는 사람이, 세상이 그의 시체에다가 할 모욕에 대해 신경이나 쓸까?”

마르크스는 자살이 “우리 사회가 잘못 조직된 것의 증상”이라고 지적했다.

“우리들 사이에서 평범하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연간 자살자 수는, 우리 사회가 잘못 조직된 것의 증상으로 간주돼야 한

다. 왜냐하면 산업이 정제되고 위기에 처했을 때, 식량이 부족하고 겨울이 매서운 시기에 이 증상[자살]은 항상 더 두드러지고 전염병적인 성격을 띠기 때문이다.”

마르크스의 동료 프리드리히 엥겔스도 자살을 자본주의 사회의 빈곤·불평등과 연결했다.

“노동계급 가운데에는 너무나 도덕적이어서 아주 극단적인 상태에서도 도둑질을 하지 않고 굶어 죽거나 자살하는 사람이 많다.”(《영국 노동계급의 상황》)

소외와 빈곤

피세는 프랑스 혁명 이후 평등한 세계가 도래했다는 부르주아지의 말과 달리 실제로 노동자들의 현실은 비참하고 자살에 내몰린다고 봤다. 마르크스는 이런 사회는 “사회”가 아니라 “짐승들이 사는 사막”이라고 통렬하게 비판했다.

“사람들이 수백만 명의 군중 속에서도 가장 깊은 고독을 발견하고,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하게 하면서 스스로를 죽이고 싶은 억누를 수 없는 욕망에 압도될 수 있는 사회는 대체 뭐란 말인가? 그런 사회는 사회가 아니라 루소가 말한 것처럼 야생 짐승들이 사는 사막일 따름이다.”

실업, 불평등, 경쟁은 모두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비롯된 병폐다. 자본주의에서 조금이라도 자살률을 떨어뜨리려면 청년들 삶을 개선하기 위한 투쟁이 일어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가 책임지고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고, 저렴하고 질 좋은 정신건강 서비스를 확대하라고 요구해야 한다. 그런 투쟁이 전진하는 속에서 청년들은 삶의 자신감도 얻고, 자기 비난 대신 집단적 투쟁이라는 대안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소외와 빈곤을 계속 재생산하는 자본주의를 근본에서 뿌리 뽑아야 한다. 그럴 때만이 청년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을 없앨 조건을 만들 수 있다.

“수백만 군중 속에서도 가장 깊은 고독을 발견하고,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하게 하면서 스스로를 죽이고 싶은 억누를 수 없는 욕망에 압도될 수 있는 사회는 대체 뭐란 말인가?”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서방의 취약성을 드러낸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2년이 다가오는 지금, 유럽 자본들은 냉전 이래 전례 없는 패닉에 빠져 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러시아의 침공에 대응해 나토가 우크라이나에 군사적 지원을 늘렸을 당시에 러시아를 과소평가했다는 것을 이제 깨달았기 때문이다.

지금 러시아와 나토 사이에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하는 목소리들 — 보수당 소속 영국 국방장관 그랜트 셉스와 육군 참모총장 패트릭 샌더스가 제일 먼저 운을 뚫다 — 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러시아의 “육군은 우크라이나에서 역량이 저하됐지만, 러시아의 공군과 해군은 대체로 건재하고, 러시아는 여전히 주요 핵강국이다.” 영국의 한 국방 관계자가 <파이낸셜 타임스>에 전한 말이다. “역량이 저하”됐든 아니든, 최근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군이 교두보 아우다이우카를 버리고 철수하도록 만들었다. 아우다이우카는 러시아가 장악한 우크라이나 동부 도시 도네츠크와 가까운 곳이다.

아우다이우카

<파이낸셜 타임스>는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전했다. “서방 관리들이 러시아의 부흥에 놀란 이유 하나는 지난 한 해 동안 러시아의 국방 제조업이 되살아난 속도가 서방의 예측을 완전히 뛰어넘는 수준이었기 때문이다. 러시아는 한 해 동안 포탄 400만 발과 탱크 수백 대를 찍어 냈다. 올해 러시아는 전면적 징병제 없이도 병력 40만 명을 새로 모집할 듯하다고 우크라이나 당국은 예측했다.”

패닉의 둘째 이유는 자유주의자이자 우파 성향인 야당 지도자였던 알렉세이 나발니가 북극권 교도소에서 사망



포격으로 파괴된 우크라이나 도네츠크 주의 한 도시 서방 지도자들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는 가장 저렴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한 것인데, 그의 죽음은 지난여름 러시아 대통령 푸틴을 향해 반기를 들었던 예브게니 프리고진이 맞이한 죽음만큼이나 수상쩍다. 러시아 국내의 탄압이 심하다는 징후는 더 있다. 다음 달에 치러질 대선에 출마하려 했던 반전(反戰) 후보 보리스 나데즈딘은 출마가 차단됐다. 푸틴의 전쟁에 반대했던 또 다른 인물인 마르크스주의 사회학자 보리스 카갈리츠키는 군사법정 항소심에서 “테러리즘을 옹호했다”는 혐의로 5년을 선고받았다.

이것이 푸틴의 자신감의 발로이든 두려움의 발로이든지 간에, 푸틴이 금방 물러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취약점은 서방 쪽이 더 분명하다. 유럽은 거대한 제조업 기반 경제임에도 우크라이나가 필요한 무기와 탄약을 생산하지 못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은 이제 군수 생산에 보조금을 지급하라고

각 정부에 촉구하고 있는데, 이는 EU를 지배했던 자유시장 교리에 어긋나는 일이다.

한편, 미국에서는 대통령 조 바이든이 추진하려는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패키지가 공화당의 반대로 의회에 묶여 있다. 흥미롭게도 우크라이나에 추가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갈수록 목청을 높이는 이들은 신자유주의자들이다.

자유시장주의 잡지 <이코노미스트>의 편집장 재니 민톤 베도스는 [미국 방송인] 존 스튜어트에게 이렇게 말했다.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것, 우크라이나에 돈을 쥐여 주는 것은 미국이 자국 안보를 가장 저렴하게 지키는 방법이다. 전투를 치르는 것도 우크라이나인 들이고, 죽고 있는 것도 그들이다. 미국과 유럽이 맡은 일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하는 것이고 그럼으로써 우리는 푸틴을 저지하고 있다.”

<파이낸셜 타임스>의 마틴 울프는



알렉스 캘리니코스

런던대학교 킹스칼리지 유럽학 명예교수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 중앙위원장

“우크라이나 피로증’이라는 말은 용납할 수 없다”고 오만한 소리를 늘어놓았다. 그런 그의 결론도 크게 다르지 않다.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것은 비용을 아끼는 방법이기도 하다. 목숨이 위험한 것은 서방 군인이 아니다. 올해 지원하기로 약속한 총액은 EU·영국·미국 GDP 총합의 0.25퍼센트도 안 된다.”

0.25퍼센트

이런 진술들을 보면 2년 전 <소셜리스트 워커>가 이 전쟁을 가리켜, 미국과 그 동맹들이 우크라이나를 무장시키고 지도하면서 위험한 적성국과 대리전을 치르는 것이라고 설명한 것이 완전히 옳았음을 알 수 있다. 베도스의 말을 빌리자면, 미국과 그 동맹들은 큰돈 안 들이고 푸틴을 저지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러시아의 침공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다. 푸틴이 극우 저널리스트 [미국 방송인] 터커 칼슨을 만나 아무리 가짜 역사를 떠들어 대도, 우크라이나인들에게 민족자결권이 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그러나 서방의 대응 역시 대단히 잘못됐다. 우크라이나는 두 제국주의 거인들의 싸움에 갈기갈기 찢기고 있다.

전쟁 초기 [당시 영국 총리] 보리스 존슨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에 타결될 수 있었던 협상을 방해했다는 것을 이제는 많은 이들이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푸틴의 새 휴전안을 서방 국가들이 거부했다는 소문이 지금 돌고 있다. 이 재앙적인 전쟁을 끝내려면 양쪽 모두에서 거대한 압력이 필요하다.

출처 Alex Callinicos, 'West's weakness is exposed by Ukraine war' (2024. 2. 20) / 번역 김중환

wspaper.org

더 많은 기사를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새로운 기사들이 수시로 업데이트됩니다.

★ 기간제교사 차별 해소는커녕
매해 채용 신체검사와 마약검사
강요하는 윤석열 정부

★ 울산 동구 민주노총 후보:
좌파 후보라면 이주노동자
확대를 반대할 수 없는데도

우크라이나 전쟁 2년 재앙적 전쟁에 엄청난 돈을 쏟아부은 서방 지배자들

다라 커미스키

2년째 지속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은 유혈 난자한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양측 병사들이 서로 경쟁하는 제국주의 열강의 이익을 위한 총알받이로 희생되고 있다.

BBC의 최근 보도는 이 점을 시인했다. “러시아의 전면적 침공이 시작된 지 2년이 흐른 지금, 전선에 투입되려는 우크라이나군 자원자들의 무리는 더는 없다.

“싸우고 싶어 하던 사람들은 대부분 죽었거나, 다쳤거나, 전선에서 꼼짝도 못 한 채 신병이 들어와 교체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지쳤다.”

러시아에서도 어마어마한 전사자 수 때문에 환멸이 있다. 돈을 벌려고 특별 대대에 “자원”한 사람들은 대개 6~9개월 만에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 그러나 2022년 9월에 징집된 30만 명은 복무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았다.

러시아 당국은 징집병들이 전쟁이 끝날 때까지 복무하게 될 것이라고 슬금슬금 암시해 왔다. 그에 따라 병사들의 귀환을 촉구하는 가족들의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학살을 지원하는 서방 나라들에서 전쟁 반대 운동이



서방은 러시아의 국력을 최대한 소모시키려고 마지막 남은 우크라이나인들까지 희생시키려 한다

성장해야 한다.

러시아 대통령 푸틴은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고 자국의 제국주의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반동적인 침공을 감행했다. 그러나 러시아 쪽으로 확장하며 러시아를 압박한 군사 동맹 나토는 이 전쟁을 자기 목적에 이용하고 있다.

서방 지도자들은 이 전쟁으로 러시아에 굴욕을 준 다음 더 큰 경쟁자인 중국을 상대하는 데 집중하려 했다.

하지만 어느 쪽도 전쟁에서 큰 진전을 보지 못했다.

지난해 내내 이어진 우크라이나의

‘대반격’은 우크라이나군 병력 10만 명의 목숨을 대가로 손바닥만 한 땅을 얻는 데 그쳤다.

이 전쟁은 우크라이나의 자주성을 지키려는 우크라이나를 서방의 제국주의적 야욕에 훨씬 의존하게 만들었다.

영국 보수당 정부와 미국 바이든 정부는 러시아의 국력을 최대한 소모시키려고 이 전쟁에 마지막 남은 우크라이나인들까지 희생시키려 한다.

최근 우크라이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는 실패의 책임을 돌릴 희생양을 만들려고 우크라이나군 총사령관

발레리 잘루즈니를 경질했다.

이번주 러시아는 아우다이우카시(市)를 완전히 장악했다. 지난해 5월 바흐무트를 점령한 이래 러시아가 거둔 최대의 성과다.

아우다이우카는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방의 두 주(도네츠크와 루한스크)를 온전히 장악한다는 러시아의 목표를 이루는 데서 핵심 지역이라고 양측 모두가 여기던 곳이다.

아우다이우카를 잃은 젤렌스키는 서방의 무기 지원 부족을 탓했다. 그리고 서방은 알렉세이 나발니의 죽음을 계기로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확대하려 하고 있다.(‘나발니의 죽음을 반(反)러시아 선전에 이용하는 서방’을 보시오.)

독일의 싱크탱크 킬 세계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2022년 1월 24일에서 2023년 10월 31일까지 2471억 달러에 이르는 군사·금융·인도적 지원을 약속받았다.

이후로 그 수치는 더 치솟았다. 보건·교육 서비스와 기후변화 대응에 쓰일 수도 있었던 돈이었다.

이 유혈 난자한 전쟁은 동-서 양측의 썩어빠진 제국주의 지도자들만 이롭게 할 뿐이다.

출처 Daire Cumiskey, ‘Rulers have spent billions on disastrous Ukraine war’ (2024. 2. 20) / 번역 김준호

나발니의 죽음을 반(反)러시아 선전에 이용하는 서방

2월 16일 알렉세이 나발니가 북극권에 있는 교도소에서 사망하자 미국 바이든 정부, 나토 동맹국들, 이들에 친화적인 언론들은 이를 즉시 대규모 반(反)러시아 선전에 이용했다.

부검도 안 된 상황에서 나토 강대국들은 일제히 “푸틴이 나발니를 죽였다”고 했다.

나발니 사망 소식이 보도된 후, 나발니의 아내 올리아 나발나야는 뮌헨안보회의의 개막식에서 연설을 요청 받았다. 올리아 나발나야는 이렇게 말했다. “푸틴과 그의 모든 측근, 푸틴의 친구들, 푸틴 정부는 우리 조국, 내 가족과 내 남편에게 저지른 짓에 책임을 지게 될 것임을 알아야 한다.”

이런 선전 공세가 펼쳐지는 가운데, 일단 나발니의 정확한 사인이 밝혀지지 않았음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점이 러시아 정부의 책임을 면해주지는 않을 것이다. 나발니는 푸틴 정



서방의 선전 공세가 계속되고 있지만, 나발니가 살해됐다는 증거는 없다

권이 관할하는 러시아 감옥에서 죽었다.

그러나 이 점이 아무 증거도 없이 나발니가 살해됐다는 주장을 타당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다.

[최근, 러시아와 2년째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의 정보수장은 나발니가 혈전으로 인해 자살했다고 밝혔다.]

출처 Daire Cumiskey, ‘Rulers have spent billions on disastrous Ukraine war – Navalny death seized on’ (2024. 2. 20) / 번역 김준호

youtube.com/c/노동자연대TV

마르크스주의 관점으로
당신의 눈을 여는 채널

노동자연대 TV

☆ 구독
♡ 좋아요
🔔 알림 설정

- ▶ 다양한 주제의 온라인 토론회 영상
- ▶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를 저항, 역사, 전망
- ▶ 주요 시사 이슈 팩트부터 논쟁점까지
- ▶ 현대 중국의 모든 것 12강
- ▶ 590여 개 콘텐츠 체계적 분류
- ▶ 기후 위기! 체제를 바꾸자 10부작

지금 구독하세요! 온라인 토론회 등 이벤트 일정과 새 콘텐츠 소식을 보내 드립니다.

노동자연대 단체에서 가입을 받습니다

위기의 자본주의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적 대안을 제안하는

노동자연대 가입하세요

workersolidarity.org/join
문의: 02-2271-2395

노동자연대 기본입장

workersolidarity.org/what-we-stand-for

기획 연재 팔레스타인, 저항, 혁명 — 해방을 향한 투쟁 ④

가자지구: 하마스의 부상

- ① 이스라엘 건국, 팔레스타인의 재앙
- ② 팔레스타인인들의 저항이 시작되다
- ③ 오슬로 협정 이후: 신자유주의 팔레스타인
- ④ 가자지구: 하마스의 부상
- ⑤ 제국주의의 경비견 이스라엘
- ⑥ 아랍 세계의 혁명과 반혁명
- ⑦ 유대인 혐오, 시온주의 반대, 좌파
- ⑧ 팔레스타인은 어떻게 해방될 수 있을까?

하마스(이슬람주의 저항 운동의 약어)의 부상은 오슬로 협정과, 팔레스타인인들의 투쟁에 대한 파타의 배신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하마스는 1987년 제1차 인티파다 때 등장했다.

그러나 하마스의 기원은 1970년대 가자지구에서 이집트 무슬림형제단을 본받으려 한 활동가들이 설립한 이슬람주의 단체들과 복지 기구들로 거슬러 올라간다.

수십 년간 파타와 좌파 민족주의 분파들이 팔레스타인 운동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는 동안, 셰이크 아흐메드 야신 같은 이슬람주의 지도자들은 다른 방법으로 지지를 구축했다.

이슬람주의 지도자들은 개인의 독실한 신앙 생활을 강조했고, 자선 활동으로 대중적 기반을 구축하려 했으며, 직능인 단체 운영권을 놓고 세속적 민족주의자들과 경쟁했다. 이슬람주의 지도자들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슬람적인” 삶의 방식을 실천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표로 삼았다.

1987년 12월 인티파다의 분출은 이슬람주의 활동가들의 전술에 극적인 변화를 일으켰다. 그 대중 봉기를 지지하는 데 흠뻑 뛰어든 것이다.

인티파다가 계속 이어지자, 하마스는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 지도부가 이스라엘과 미국 내 이스라엘 후원자들과의 타협을 받아들이는 것을 더 강경하게 비판했다.

인티파다

오슬로 협정이 체결된 직후 이슬람주의자들은 주변화됐다. 그러나 오슬로 협정에 따른 “평화 프로세스”에 팔레스타인인들이 환멸을 느끼면서 하마스에 대한 지지가 커지기 시작했다.

팔레스타인인 자치 구역에 대한 출입 통제가 팔레스타인 경제의 숨통을 조이고, 이스라엘 유대인 정착촌이 무서운 속도로 계속 확장됐다. 그러면서 하마스는 파타와 다른 전략을 제시하는 세력으로 비쳤다.



오슬로 협정에 대한 환멸 속에 하마스가 성장했다. 2022년 하마스 창립 기념 집회 참가자들(가자지구)

2000년 또다시 봉기(제2차 인티파다)가 분출하고 이스라엘이 무력으로 무자비하게 대응하자 하마스는 점령군에 대한 군사적 공격에 나섰다. 하마스와 연계된 자살 폭탄 공격이 점령지에서 한참 떨어진 곳에서 감행돼, 전쟁과 점령이 낳는 공포가 이스라엘의 중심부까지 전달됐다.

하마스의 군사 전술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인들 사이의 군사력 규모, 군사적 자원의 커다란 격차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하마스는 또한 수십 년 전 파타와 PLO 좌파가 개척한 팔레스타인 게릴라 투쟁의 오랜 전통을 이어갔다. 파타의 일부도 이스라엘에 맞선 무장 투쟁을 이어갔지만, 팔레스타인 당국(PA) 보안군을 운영하는 파타의 처지는 극복 불가능한 모순을 낳았다.

파타 지도자들은 오슬로 협정이 낳은 팔레스타인 당국 등의 권력 기구를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이스라엘에 대한 저항을 포기할 것인가? 그들은 저항을 포기하기로 했고, 그 결과 이스라엘에 맞선 전투는 대부분 하마스에 의해 수행됐다.

하마스는 또한 선거에서도 자신이

파타의 강력한 대항마임을 입증했다. 하마스는 2006년 팔레스타인 의회 선거에서 압승을 거뒀고, 곧바로 장기 휴전을 공개 제안했다.

이에 미국과 이스라엘, 이집트는 하마스가 주도하는 통합 정부를 무너뜨리려고 파타와 함께 음모를 꾸몄다. 파타가 장악한 보안 기관들이 가자지구에서 쿠데타를 기도하자 하마스는 이를 제압하고 가자지구를 장악했다.

그 후 가자 지구는 이스라엘의 포괄적인 군사적·경제적 봉쇄에 직면했다. 가자지구와 국경을 맞댄 이집트가 그 봉쇄를 함께 집행했다.

한편, 파타가 장악한 팔레스타인 당국은 하마스를 더한층 압박했다. 가자지구 공무원들에게 급여를 지불하지 않았고, 이스라엘과 공모해 가자지구로 가는 전기를 끊었다.

여기에 더해, 사우디아라비아와 그 동맹국들의 진영과 이란과 그 동맹국들의 진영이 중동을 무대로 벌이는 경쟁이 더 치열해지면서 하마스는 더 큰 어려움을 겪었다.

카타르는 가자지구의 하마스 정부에 필수적인 자금을 대고, 2012년 어쩔 수 없이 시리아에서 철수한 하마스 지도

부에게 피신처를 제공했었다.

그러나 그런 카타르마저 2017년 6월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제적·외교적 제재를 받았다. 이것은 페르시아만을 지배하고 더 넓은 지역에서 이란의 영향력을 억제하려는 사우디아라비아의 공세적 전략의 일부였다.

이러한 압력들이 결합돼 하마스는 후퇴를 받아들이게 됐고, 2017년 10월 하마스는 파타와의 ‘화해’ 합의서에 서명했다.

이집트 정부가 중재한 이 합의에 따라, 하마스는 팔레스타인 당국하에서 2018년 말 총선을 열어 통합 정부를 구성하는 데 동의했다.

귀환 대행진

2018년 3월과 4월, 이스라엘과 가자지구의 접경지에서 거대한 항의 시위가 벌어졌다. 이는 봉쇄라는 비인간적인 압박에도 불구하고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인들이 정의를 위한 투쟁을 포기하지 않았음을 극적으로 보여 줬다.

국경에 다다른 수많은 시위대는 이스라엘군의 살인적인 폭력에 직면했다. 중무장한 이스라엘의 저격수들이 깃발을 든 비무장 시위자들과 돌을 던지며 저항하는 청년들을 사살했다. 2018년 4월 3일 적어도 팔레스타인인 17명이 살해되고 약 1500명이 부상당했다. 5월 14일에는 최소 60명이 더 살해됐다.

이 ‘귀환 대행진’ 시위에 대한 이스라엘의 무지막지한 대응은 결코 우연한 사고가 아니다. 이런 대응은 봉쇄를 통해 가자지구 주민들을 잔인하게 공동 처벌하는 것과 동일한 정책에서 나온 것이다.

그 정책은 무장 저항으로든 평화 시위로든, 하마스 소속이든 다른 단체 소속이든, 점령에 저항하는 모든 팔레스타인인들에게 처절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스라엘 대변인들이나 서방 정부 내 이스라엘 옹호자들의 주장과 달리, 그들이 가자지구 통치 세력을 문제 삼는 것은 단지 그 세력이 하마스여서가 아니다. 그들은 점령에 저항할 권리, 팔레스타인 난민들이 그들의 빼앗긴 땅으로 돌아갈 권리를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

▶ 13면으로 이어짐

재중 북한 노동자들, 체불 임금 투쟁 승리하다

북한도 중국처럼 국가자본주의 국가다

중국 지린성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 2000여 명은 지난달 체불 임금을 받고 자 공장 점거 파업을 벌여 승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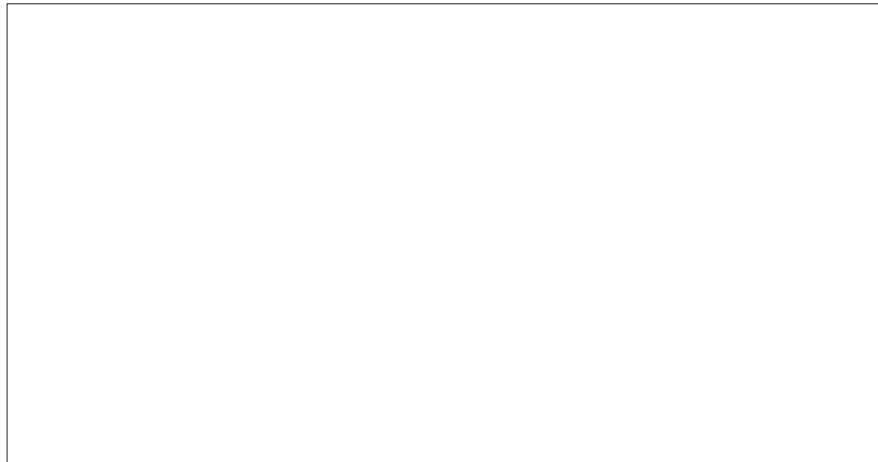
노동자를 파견한 북한 기업에 중국 기업이 준 임금이 북한 노동자들에게 지급되지 않았다. 북한 국가가 '전쟁준비자금' 명목으로 임금을 가로챘다는 것이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노동자들은 1월 11일 파업을 시작했다. 이 파업은 지린성 소재 몇몇 의류 제조, 수산물 가공 하청업체 공장들로 확대됐다. 일부 공장에선 노동자들이 공장을 점거하고 북한 관리자를 인질로 잡기도 했다. 붙잡힌 관리자는 노동자들의 폭행으로 숨졌다고 한다.

그러자 북한 당국이 선양 주재 북한 총영사 등을 급파해 체불 임금을 나눠서 지불하겠다고 약속하고, 그중 일부인 수개월 치 임금을 지급하면서 15일 무렵에 사태가 일단락됐다.

이번 파업의 중심에는 의류 제조 공장 노동자들이 있었다. 그들은 10~20년의 경력이 있는 숙련 노동자들이어서, 북한 당국이나 중국 기업 사측이 점거 파업 참가 노동자들을 대체 인력으로 즉시 교체하기 어려웠다.

설사 북한이 대체 인력을 보내려 해도 비자와 취업 허가 서류를 준비하고 중국 당국과 협상하는 등 시간이 걸릴 것이었다.



중국 단둥의 의류 제조 공장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들

그래서 북한도 일단 한발 물러나 임금 지급을 약속할 수밖에 없었던 듯하다.

이 노동자들이 가져다주는 외화 수입이 필요하기 때문에 북한 측은 파업 종료 후에도 파업 참가자 전체를 상대로 보복하지 못하고 그중 5퍼센트 정도만 본국으로 송환했다.

숙련

북한에 인접한 중국 동북 3성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의 규모는 상당하다. 2019년 유엔 현지 조사에 따르면, 북한 노동자 8만 명이 중국에서 일하며 그중 6만 명이 동북 3성에 집중돼 있다.

이주노동자들이 벌어들이는 돈은 북한 경제에 꽤 괜찮은 외화 수입원이다.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 정부는 중국에 노동자들을 적극 파견했다. 정부 산하기관들이 앞다퉈 인력 송출을 추진했다.

중국 기업들도 북한 노동자들이 필요했다. 2008~2009년 금융 위기 후 경기가 회복되면서 중국의 일부 산업에서 노동력 부족 현상이 나타났다.

그래서 동북 3성 소재 중국 기업들이 생산비 절감과 인력난 해결을 위해 안정적으로 북한에서 인력을 확보하려 해 왔다.

중국 노동자 인건비의 최대 절반 수준으로 양질의 북한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 때문에 북한 인력 유치 경쟁이 중국 기업들끼리 치열하다고 한다.

2017년 유엔 대북 제재 결의로 해외

채류 북한 노동자들은 본국으로 돌아가게 돼 있었지만, 중국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의 규모는 크게 줄지 않았다.

그러나 북한 노동자들은 중국 기업에서 받는 임금의 상당액을 떼인다. 앞서 언급했듯이 북한 국가가 상당 부분을 가져가고, 공동 경비까지 빼면 노동자들 손에는 월 700~1000위안(약 13만~19만 원) 남짓 떨어진다. 2021년 기준 지린성 최저임금이 1500위안이 훨씬 넘음을 감안하면 매우 적다.

또한 북한 노동자들은 장시간 노동을 견뎌야 한다. “[중국 단둥의 의류 공장 등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의 상당수가 충분한 수면시간을 보장받을 수 없을 정도로 장시간 근무에 시달리고 있다. 이로 인해 봉제업체에 일하는 북한 여성노동자들은 대부분 허리와 목, 무릎 등에 고질병을 달고 살아간다.”

북한 노동자들은 대개 파견국에 정주할 수 없고 보통 3~5년 사이의 고용 기간이 만료되면 귀국해야 한다. 또한 이직의 자유가 없고, 단체 생활을 하고 외부의 접촉을 제한당하는 등 많은 제약을 받는다.

그렇지만 지린성의 북한 노동자들은 여러 제약에도 불구하고 단호한 점거 파업을 벌여, 해외 파견 노동자들에 대한 착취에 적잖이 의존해 온 북한 국가의 허를 찔렀다.

김영익

▶ 12면에서 이어짐

2021년 ‘단결 인티파다’

2021년 5월 역사적인 총파업이 역사적 팔레스타인 전체를 단결시켰다. “역사적 팔레스타인”이란 이스라엘의 점령하에 있는 서안지구와 가자지구를 비롯해, 1948년 시온주의자들이 이스라엘 국가를 세우려고 빼앗은 땅을 모두 아울러서 이르는 말이다. 2021년 파업은 진정한 아래로부터의 반란이었고, 이스라엘의 인종 분리 체제에 맞서는 새 세대 팔레스타인 활동가들의 호소로 시작됐다.

하이파에서 라말라까지, 가자지구에서 동예루살렘까지 팔레스타인인들은 동일한 요구를 걸고 거리로 나왔다. 가자지구에 대한 폭격과 봉쇄의 중단, 동예루살렘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한 인종 청소 중단, 팔레스타인인들을 겨냥한 시온주의 정착자 운동의 폭력과 선통

중단을 요구했다.

이 새로운 저항 물결을 낳은 요인 하나는 이스라엘에 사는 팔레스타인인 시민들에 대한 인종차별의 강화다. 1948년에 이스라엘에 빼앗긴 팔레스타인 땅에 살던 팔레스타인인들은 법적 차별 외에도 날로 심각해지는 시온주의 캠페들의 인종차별적 공격에 시달렸다. 2021년 5월에 시온주의 정착자 운동은 텔레그램과 왓츠앱을 활용하며 리드와 하이파 등의 도시에서 팔레스타인인의 집과 상점을 공격했다.

이에 이스라엘 내 팔레스타인인들은 조직적인 자기 방어뿐 아니라 대규모 시위와 파업으로 대응했다.

이스라엘 회사에서 일하는 팔레스타인인 버스 운전사 약 1000명이 총파업 호소에 응했다. 한편, 서안지구의 이스



2021년 ‘단결 인티파다’ 당시 동예루살렘의 시위대

라엘 건설사에서 일하는 팔레스타인인 6만 5000명이 출근을 거부해 사용자들이 약 535억 원의 손실을 입었다.

한편, 가자지구의 투사들은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의 알아크사 사원을 공격한 것에 대응해 이스라엘에 로켓을 발사했다. 이에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에 2주간 포격을 퍼부었다.

2021년 투쟁은 수십 년 된 팔레스타인인들의 분열과 고립을 넘어 역사적 팔레스타인 전역에서 대다수 팔레스타인인들을 단결시켰다. 이는 아래로부터의 투쟁 전통을 부활시키는 중요한 일보 전진이었다.

진보당의 민주개혁진보연합 참여는 계급협력주의일 뿐이다

민주당, 진보당, 새진보연합, 연합정치시민회의가 총선 선거연합인 '민주개혁진보연합(이하 연합)'을 결성했다.

'연합'은 공동 공약을 마련하고 비례후보를 공천하고, 지역구에서는 단일후보를 낸다. 전략적 야권연대인 것이다.

녹색정의당(정의당과 녹색당의 선거연합정당)은 내부 논쟁 끝에 '연합'에 불참하기로 했다. 그러나 민주당과의 지역구 단일화 협상은 열어놓았다.

'연합'에 참여하는 진보당(3인), 새진보연합(3인), 시민회의(4인) 측의 비례후보들은 13번 안에 배치된다. 지난 총선 민주당의 비례 위성정당은 33.5퍼센트 득표로 17석을 얻었다. 울산 북구는 경선 없이 진보당의 윤종오 전 의원으로 단일화했다.

진보당은 2012년 총선(당시 통합진보당) 이후 12년 만에 민주당의 공식 선거연합 파트너가 됐다.

민주당은 2012년 총선 뒤 통합진보당의 분열과 국가보안법 탄압으로 인한 통진당 해산 사태를 겪은 뒤 진보당 계열과는 전국적 수준에서 선거연합을 하지 않았다. 지배계급이 진보당 핵심부의 친북 성향에 거부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득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봤기 때문이다.

반격

그런데도 '연합'이 결성된 것에는 몇 가지 요인이 작용한 듯하다.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지난해 10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에서 조금씩 회복하고 있다. 지배계급은 여전히 국민의힘을 제일 선호 정당으로 여긴다.

정부·여당은 총선 승리를 위해 노골적인 우익적 행보를 자제하고, 재정 긴축 기조와 어울리지 않는 예산 소모적 지역 공약들을 남발하고 있다. 한동훈을 차기 대선 주자로 내밀어 보수적 청년층의 환심을 사려 한다. 이런 제스처로 대중의 정권 심판 정서를 희석시키고 싶어 하는 것이다.

반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좌우로 벌려' 광범한 반윤석열 정서를 민주당으로 수렴시키려 하고 있으나, 온건 보수층 포섭은 잘 안 되고 있다. 반면 민주당 왼쪽 정당들과의 야권연대를 거

부하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진보당이 공공연히 친북적으로 행동하지 않을 것으로 보는 듯하다. 진보당은 핵심부의 친북적인 본성에도 불구하고, 정당 자체는 남한 국가의 의회민주주의 규칙을 따르는 개혁주의 정당으로 운영돼 왔다. 특히 민주노총 관료 기반이 확장됐다.

진보당 지도부는 반복적이고 정치적인 압박을 앞세워 통치하는 우익에 반대하는 국민 연합 전략을 추구해 왔다. 이번 총선에서도 "야권최대연합"을 주장했다.

민주당은 진보당뿐 아니라 녹색정의당까지도 선거연합에 끌어들이고 싶었을 것이다. 급진적 환경운동 표를 획득하는 데 플러스가 될 테니 말이다. 민주당은 녹색정의당과 지역구 단일화 협상을 할 계획이다.

'연합'의 총선 공약은 노동계급 대중의 당면한 필요보다 민주당이 받아들이 수 있느냐가 가장 큰 합의 기준이 될 것이다. 그래서 복합 위기의 시기에 노동계급 대중의 필요에 한참 못 미치는 내용이 될 듯하다.

본지가 누차 지적했듯이, 민주개혁진보연합에 진보당이 참여한 것은 그당의 선거 득표라는 면에서는 도움이 되겠지만, 대중의 필요와 대중 투쟁의 전진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무원칙한 선거중심주의와 기회주의의 발로인 것이다.

민주노총의 비일관성

진보당의 '연합' 참여 발표(2월 13일) 직후, 민주노총 중집에서 "지지 철회" 문제를 두고 장시간 격론이 벌어졌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지지 철회"를 제기한 쪽은 진보당의 결정이 민주노총의 총선 방침에 위배되므로 민주노총의 총선 지지 정당에서 진보당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9월 대의원대회에서 통과된 민주노총 총선 방침 관련 구절은 이렇다. "민주노총은 친자본 보수양당 지지를 위한 조직적 결정은 물론이고 전·현직 간부의 지위를 이용하여 친자본 보수양당을 지지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민주노총 중집에서 진보당의 결정을 지지한 집행위원들은 민주개혁진보연



민주당과의 전략적 야권연대로 이루려는 사회 개혁은 애초부터 목표·수단·방법 모두 제약된다

합은 위성정당이 아니고, 지금은 반윤석열 연합 정치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진보당이 민주당과 연합 정당(이재명은 "준위성정당"이라고 불렀다)을 만드는 것은 민주노총 조합원들에게 민주당 지지도 호소하는 것이다.

몇 달간 논의를 통해 안을 마련하고 표결을 거쳐서 정한 결정을 그렇게 간단히 무시해서는 안 되었다. 그 결정을 주도한 것은 지난해 연말 연임한 집행부 자신이었다.

4년 전 총선에서 녹색당이 민주당의 위성정당에 참여 결정을 하자(그 며칠 뒤 녹색당은 그 결정을 번복했지만) 민주노총은 녹색당 지지를 철회한 바 있다.

그리고 민주노총 총선 방침은 민주당을 "친자본 보수정당"으로 규정했는데, 진보당은 그런 당과 선거연합을 하겠다고 한다.

민주당이 부자들의 이익을 매우 노골적으로 대변하는 국민의힘 같은 우파 정당은 아니다. 그러나 민주당도 한국 지배계급의 선택을 받아 한국 자본주의 국가와 자본주의 경제를 관리하고 싶어 하는 명백한 친자본주의 정당이다. 민주당이 말하는 개혁은 한국 자본주의를 자신들이 더 잘 안정화시키고 성장시킬 수 있다는 것이었다.

진보당이 이런 민주당과 전략적으로 연합해 이루겠다는 사회 개혁은 애초부터, 기성 질서 수호 논리에 도전하는 개혁일 수가 없다. 이는 개혁의 목표뿐

아니라 개혁을 위한 수단·방법에도 제약이 있다는 말이다.

체제의 복합 위기 속에서 지배계급 자체가 우경화하는 오늘날, 전국적 선거 승리조차 개혁을 보증할 수 없다. 그것이 박근혜 탄핵 이후 개혁 염원 대중이 겪은 쓰디쓴 경험이기도 하다.

윤석열 정부에 항의하는 투쟁이 꼭 민주당과의 선거연합이어야 할 불가피한 이유는 없다.

선거는 파편화된 유권자 개인으로서 4~5년에 한 번 투표하는 것이고, 선거 후 삶을 공격하고 팬츠는 공약을 폐기하는 정치인들을 심판하려면 다시 4~5년을 기다려야 한다. 그래 봤자 또 다시 시시포스의 노동이다.

기성 질서에 도전하지 않고서, 다음 선거나 기다리면 될까?

의회 정치인들의 (억지나 부리는 보수 정치인들과의) 지루하고 복잡 터지는 정치 협상과 의회 책략만 쳐다보고 있으면서 개혁을 얻거나 개혁을 막아낼 수 있을까?

그런 방법으로는 작은 개혁조차 성취하기 힘들거나 배신적 타협이 되기 십상이다. 가령 국민의힘, 민주당, 정의당이 3자 합의로 통과시킨 전세사기 특별법이 그런 사례다.

진정한 사회 개혁은 친자본주의 정당과의 연합이 아니라 노동계급 대중을 광범하게 지속적으로 동원하는 계급투쟁이 일어나야 가능하다.

김문성



서평 | 《철학의 근본 문제 유물론 대 관념론: 역사적 갈등》

유물론으로 분석한 흥미진진한 서양철학사

유물론과 관념론의 투쟁을 중심으로 서양철학사를 쉽고 흥미진진하게 살펴보는 신간 《철학의 근본 문제 유물론 대 관념론: 역사적 갈등》(타카다 모토무 지음, 최미선 옮김, 책갈피, 272쪽)이 나왔다.

철학 책이라고 하면 흔히 따분하고 현학적이어서 열어 보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 책도 마찬가지로 지일 거라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저자 타카다 모토무는 일본의 마르크스주의 철학자이자 일본 노동운동의 선구적 활동가이다.

오랫동안 노동자들을 교육해 온 저자는 노동운동이 활발하던 1970년대 초에 노동자들이 쉽게 서구 철학의 역사를 이해할 수 있게 하려고 이 책을 썼다.

철학을 낯설어 할 이들을 염두에 두고 풍부하고 재치 있는 비유와 예시를 들어 쉽게 설명하려 한 저자의 노력이 물론 느껴진다.

고대 사회, 봉건 사회, 부르주아 혁명 시대를 거쳐 마르크스주의 철학의 형성에 이르는 실로 방대한 역사를 다루면서도 복잡하거나 장황한 설명으로 독자들을 함정에 빠뜨리지 않고 군더더기 없이 간명하게 요점을 전하는 저자의 능력이 돋보인다.

매끄러운 번역도 글을 편안하게 읽는 데 크게 한몫한다.

길잡이

이 책이 여느 철학 책에 견줘 돋보이는 것은 독자들의 철학 역사 여행이 “마음 편한 여행”이 되기를 바라는 저자의 세심한 노력과 뛰어난 글솜씨만이 아니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토마스 아퀴나스, 칼뱅, 흄스, 흄 등등 고등학교 윤리(또는 도덕) 시간에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철학자들과 그들의 사상을 소개한다. 하지만 이 책은 이들의 사상을 새로운 눈으로 보게 한다.

이들 사상은 유물론과 관념론의 투쟁이라는 큰 줄기 속에서 소개된다. 엥겔스는 “사고와 존재의 관계 문제”가 “모든 철학의 근본 문제”라며 “이 문제에 어떻게 답하느냐에 따라 철학자들은 양대 진영으로 분열했다”고 썼다.

그러나 저자는 이 근본 문제를 둘러

싼 철학 논쟁의 역사가 그저 사상과 사상이 충돌한 역사가 아니었음을 보여준다.

저자는 왜 특정 시기에 특정 철학 사조가 등장해 논쟁이 벌어졌는지를 그 사회의 생산력과 그것이 주된 영향을 미쳐 형성한 사회관계와 연관지어 설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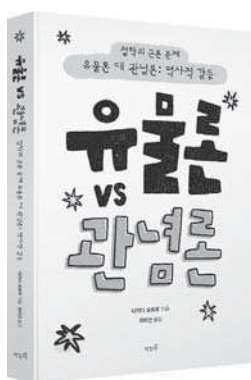
가령 관념론 철학의 시조라고 할 수 있는 플라톤 철학은 “민주 정치의 해악에서 벗어나고 가능하면 전통적 질서를 지탱하는 신화로 복귀하고 싶”은 “귀족적 반동의 일원이었던 그의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저자는 설명한다.

또, 중세 말 서유럽에서 벌어진 교회 개혁 운동의 이면에는 “로마 교회의 권력에 맞선 투쟁에 가장 직접적인 이익이 걸린 계급”인 부르주아지의 요구가 자리잡고 있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인’ 사상에는 노예 소유주 계급의 어떤 이해관계가 반영된 걸까? 스토아 학파의 도덕주의와 노예제 사회의 부패는 무슨 관련이 있을까? 르네상스 자연철학과 자본주의의 발전은? 프랑스 유물론과 중세 권력, 농노제에 맞선 투쟁은?

저자는 철학자들의 사상을 그들이 발 딛고 서 있던 물질적·사회적 현실과 연결시켜 사상이 어느날 갑자기 “버섯처럼 땅에서 솟아난” 것이 아님을 설득력 있게 보여 준다. 유물론의 방법으로 철학의 역사 자체를 분석하는 것이다.

또, 저자는 마르크스와 엥겔스, 레닌의 저작들을 꼼꼼히 살펴서 철학자들에 대한 그들의 예리한 논평을 적재적소에 소개한다. 그들의 논평은 철학자



**철학의 근본 문제
유물론 대 관념론: 역사적 갈등**

타카다 모토무 지음, 최미선 옮김,
책갈피, 272쪽, 15,000원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영원한 발전 과정이라는 헤겔의 사상을 보존하면서도 관념론적 선입견은 내다 버렸다. 1844년 파리에서 사회주의자들과 토론 중인 마르크스와 엥겔스

들의 사상을 균형 있고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길잡이가 되어 준다.

철학의 역사는 곧 과학적 세계관 확립의 역사이기도 하다. 저자가 안내하는 길을 따라가다 보면, 마르크스와 엥겔스, 레닌이 이전 철학자들의 유산을 구석구석 예리하게 포착하고 그 합리적 핵심을 받아들이면서 그것으로 어떻게 과학적 사회주의 이론과 과학적 세계관의 초석을 놓았는지도 이해할 수 있다.

저자가 지적하듯이 “마르크스주의에는 세계 문명 발전의 큰 길에서 벗어난 어딘가 폐쇄적이고 경직된 학설이라는 의미의 종파주의 같은 구석이 없다.”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기초를 놓은 새로운 세계관은 “인류의 가치 있는 모든 유산의 집대성”이었다.

“철학사의 출발을 장식한 이오니아 자연학의 자생적 유물론과 자생적 변증법은 관념론과 형이상학의 도전으로 단련되면서 갈지자 행보를 거쳐, 한편으로는 프랑스 유물론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헤겔의 변증법으로 결실을 맺었습니다. 다만, 프랑스 유물론은 형이상학적 약점이 있었고, 헤겔의 변증법은 관념론적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세운 새로운 세계관은 이런 약점과 일그러짐을 걷어 내고 유물론과 변증법을 처음으로, 본격적으로, 의식적이고 내적으로 결합시켰다는 역사적 의의가 있습니다.”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세계관은 “모든 지식의 근원이 경험에 있고 따라서 모든 것은 경험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한 경험론과도 다른 것이었다.

저자는 “과학은 어떤 면에서는 경험에 근거하지만, 그 외형의 다양성에 사로잡히거나 경험담만으로 끝난다면 그것은 학문이 아니”라며 경험론이 사물을 피상적으로 보는 데 그쳐 현상의 배후에 있는 본질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또, 영국 경험론의 궤적을 통해 경험론이 어떻게 유물론에서 출발해 주관적 관념론으로 미끄러

질 수 있었는지를 보여 준다.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사물의 본질(즉 내적 구조)과 현상(즉 겉으로 드러난 외관)을 구분해, 본질은 현실을 단순히 관찰함으로써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봤다. 겉보기에는 태양이 지구의 주위를 도는 것 같지만 진실은 정반대인 것처럼 말이다.

이처럼 관념론뿐 아니라, 유물론의 전통에 있는 서로 다른 유물론들의 의의와 약점을 고루 살펴보는 것은 마르크스주의의 변증법적 유물론의 정수를 이해하는 데 커다란 도움이 된다.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철학은 무엇보다 착취와 억압이 없는 사회를 위한 실천의 철학이었다.

실천철학

‘사고’와 ‘존재’ 가운데 무엇이 근원적인지를 따져 묻는 것은 실천과 동떨어진 학자들의 현학적 논쟁거리가 아니다.

이스라엘과 서방이 민주주의 수호자를 자처한다고 한들 이를 믿을 사람이 몇이나 될까? 우크라이나 전쟁도 “권위주의 vs. 민주주의 전쟁”이라는 지배자들의 말이 아니라 실재를 봐야 서방과 러시아 간 대리전이라는 점이 드러난다. 옛 소련과 중국, 북한 국가가 사회주의를 표방한다고 해서 이를 곧이곧대로 믿어야 할까? 팔레스타인인들의 무장 투쟁의 정당성을 이해하려면 그들의 사상이 아니라 75년 넘게 이어져 온 이스라엘의 인종학살과 점령이라는 역사적 맥락에 주목해야 한다.

관념이나 말이 아니라 실재를, 부분이 아니라 전체를, 그 내부의 모순과 변화를 보는 눈은 무엇보다 착취와 억압으로 얼룩진 세계의 진실을 꿰뚫어 보고 변화를 이끌 동력과 방법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필수적이다.

세계를 바꾸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이 책이 무기가 될 것이다. 일독을 권한다.

이현주



우크라이나군 탱크

독일 매체 <메르큐어>

“한국 정부, 우크라이나에 포탄 150만 발 우회 제공”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포탄 150만 발을 우회 제공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2월 21일 독일 매체 <메르큐어>가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150만 발의 포탄을 우회 제공했다고 보도했다. “[한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중요한 구실을 했다.”

윤석열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우회 지원한다는 점은 여러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지난해 말 <워싱턴 포스트>는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포탄의 양이 유럽 전체보다 많다고 보도했다.

한국이 제공한 포탄의 양은 상당할 거라고 짐작됐지만, 그 양이 구체적으로 보도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메르큐어>의 해당 기사는 한국이 미국과 폴란드에 포탄을 제공해 “두 나라가 자기들 포탄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는 것을 가능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 기사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에만 150만 발의 포탄을 제공했다.

현재 러시아는 하루 1만 발 넘게 포탄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군 사용량은 하루 2000발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최근 아우디우카에서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에 밀려 철수한 것도 포탄 부족이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은 우크라이나가 필요로 하는 포탄과 무기를 충분히

게 제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럽연합(EU)은 오는 3월까지 우크라이나에 100만 발을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할 상황이다. “서방의 창고가 비어 있다. 주요 전쟁에 필요한 수준의 포탄을 생산하려면 올해 말이나 돼야 한다.”

또, 미국 상원에서 얼마 전에 600억 달러어치 우크라이나 지원 패키지가 통과했지만, 하원에서 공화당의 반대로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가장 중요한 [포탄] 공급자 중 하나”였던 것이다. 150만 발이면 우크라이나군이 요구하는 하루 6000발 기준으로 250일 동안 사용할 수 있는 막대한 양이다!

<메르큐어>의 기사가 인용한 유럽의 회 소속 한 군사 전문가는 이렇게 결론 내렸다. “한국이 없었다면, 우크라이나의 지난여름 대반격은 이뤄질 수 없었을 것이다.”

이 기사는 북한도 러시아에 포탄 등을 제공해 러시아의 전쟁 수행을 도왔다고 지적한다. 분단 상황에서 평시에 포탄을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남한과 북한의 몸값이 올라간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이 기회를 한국 자본주의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이익을 얻을 기회로 삼으려 한다.

그러나 그것은 전쟁을 연장하고 수

많은 무고한 사람들의 목숨을 희생시킨 대가일 것이다.

미국과 그 동맹들이 우크라이나를 앞세워 러시아와의 대리전을 치르면서, 평범한 우크라이나인들은 삶의 터전을 잃고 총알받이로 내몰려 죽거나 다쳤다.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의 비극에 크게 일조하고 있는 것이다. 끔찍한 일이다.

한국의 무기 지원은 러시아의 반발을 사며 한반도의 긴장도 고조시키고 있다.

한편, 윤석열은 원래 2월 18일 독일 순방에 나설 계획이었다. 그런데 순방을 코앞에 두고 돌연 취소해 그 배경에 이목이 집중됐다.

애초 계획대로라면 윤석열은 독일에

서 고급 연회인 ‘파티에 말짜이트’에 참석할 예정이었는데(<서울의 소리> 보도), 이 연회는 독일 정·재계 거물들이 모이는 반(反)러시아 성토의 장으로 유명하다.

윤석열이 예정대로 독일을 순방했다면 이 연회에서 윤석열 정부가 미국 등 서방을 편들며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대량 지원하고 있음이 거론됐을지도 모르겠다.

지난해 이 연회에는 나토 참모총장과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사무총장이 주빈으로 참석한 바 있고, 올해는 역시 미국의 주요 동맹들인 독일 총리 올라프 숄츠와 에스토니아의 총리 카야 칼라스가 주빈으로 초대됐다.

이현주

3월 6일(수)
**노동자연대 웹사이트가
완전 새롭게 개장합니다!**

- <노동자 연대> 신문, 노동자연대 단체 웹사이트 통합
- 입체적인 첫 화면
- 기사 보기 페이지 대폭 개편
- 통합 검색 제공
- 사상과 이론 페이지 신설